



성도의 빛 2
1972

영감의 메시지

버나드 피이 브룩뱅크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러 처소에 영적인 암흑이 깔려 있으며 수많은 주님의 자녀의 삶에도 영적인 암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명을 경멸하며 자기 자신과 이웃을 경멸하며 결혼과 가정을 경멸하며 거룩한 경전을 경멸하는 풍조가 세상에 넓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알콜성 음료, 담배, 흥분제, 마약 등을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기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초가 인간의 의지와 사고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탐욕으로 쉽게 바뀝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비롯하며 탐욕은 사탄에게서 시작됩니다.

많은 젊은이와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과 미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선사하며 미래는 나에게 무엇을 선사하겠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과 구세주께서 인류를 위하여 허가해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이 시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 8 권 제 2 호 순 서 1972년 2월호

■ 권두언 : 영국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죠셉 필딩 스미스	1
영국 선교 사업의 추억 휴 비이 부라운.....	6
회복의 메시지 에이 디아돌 터틀.....	10
너희는 두려워 말라 알빈 아아르 다이어	14
가르치는 대로 생활해야 매리온 디이 행크스	17
일본에 있는 친구.....	21
친구가 친구에게 하워드 더블류 헌터.....	22
스튜아트와 어둠 윌리엄 제이 비트라.....	25
지로와 야구팀 버나딘 비티	26
네가 들이킨 후에 에스 딜위스 영	29
만체스타 대회	32
질의 응답	34
하나님의 왕국 디아돌 엠 버튼.....	38
모두가 나누어야 할 아담의 축복 엘드레드 지 스미스	41
패체니 미키 구드윈.....	43
선교부장 메시지 : 안식일 부라운.....	46
내외 소식	47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2년 2월 1일

통권 제79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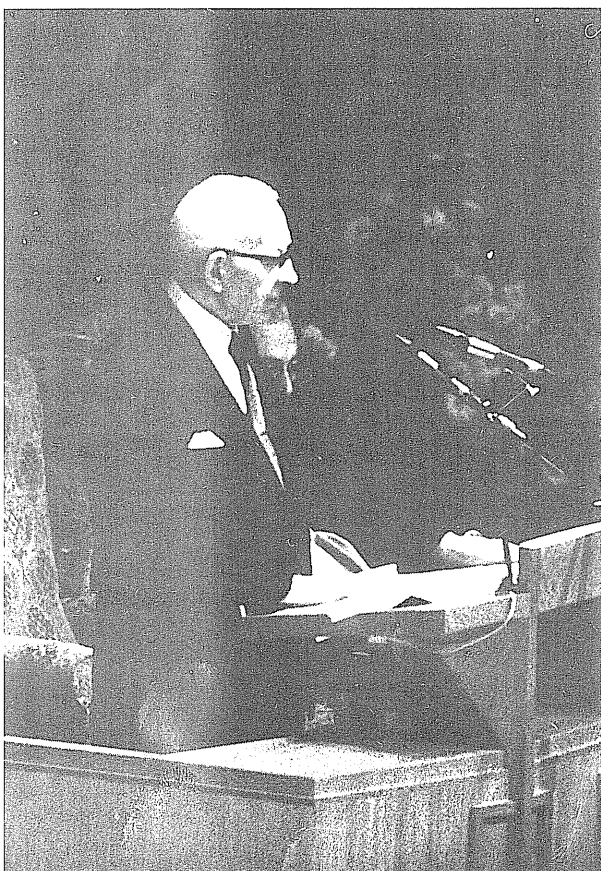
정가 : 1권 100원

1년 800원

(송료포함)

표지 말 : 이달의 표지에는 영국에서 보내온 사진 두 장을 특징으로 실었다. 앞 표지에는 현재 95세이시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인 죠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께서 영국의 북부 스코틀란드 지역을 위한 십이사도 지역 대표인 테렉 에이 커스버트 장로와 함께 영국의 만체스터 인근에 있는 장미원 길을 산책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만체스터에서 열린 지역 총회에서 스미스 대관장님은 말씀을 다섯 번 하셨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본문에 실었다.

뒷 표지는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을 생각나게 해 주는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히어포드샤이어의 존 벤바우씨 농장 연못가에 있는 히어포드 지부 소속인 세 어린이, 트루더 와이즈맨과 신더 와이즈맨과 클리포드 그린하우스가 보인다. 이곳에서 당시 십이사도였던 우드럽 장로님은 1840년 600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교회에 들어 오게 하셨다. (도일 엘 그린 촬영)



1971년 8월 27일, 금요일 영국 만체스타에서 있었던 지역 연차대회의 오후 총회에서 말씀하시는 대관장님

영국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조셉 필딩 스미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

개회사

●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국에 있는 교회에 계신 회원 여러분을 대하는 나의 기쁨을 무어라고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으며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우의도 이루 다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는 까닭에 이 나라에서는 가장 축복 받은 복된 백성인 것입니다. 또 내가 여러분을 복된 백성이라고 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머지고 평생을 두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기로 성약을 나누었기 때문이며 아버지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토록 성장하여 연차 대회를 여러 나라에서 갖지 않으면 안될 만큼 되었다는 사실이 나와 총관리 역원들에게는 여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교회 초창기에 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바 있는 이 영국 땅에 우리가 갖는 이와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일보다 더 보람있는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제외한 역대의 모든 대관장이 위대한 이 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나도 젊은 선교사로서 칠십 여년 전에 이 땅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곳 만체스타에서 연차 대회를 갖는 이 사건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삶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세우신 위대한 교회, 세계적인 교회에 속한 회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국 록키산 꼭대기

에 사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던 과거는 이미 오랜 세월 저 쪽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본부가 쏘트레이크 시에 있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집이 세워진 이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주님의 율법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법을 배우고자 이곳으로 몰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의 조직에 속한 회원으로의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회복의 기쁜 소식을 모든 나라와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을만한 능력과 힘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모든 나라에 복음을 가르쳐야 하며 많은 개종자를 만들어 온 나라에 성도의 집단이 큰 무리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선지자 나파이는 시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사악함이 온통 판을 치고 인간의 가증함이 창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사악함의 권세가 “온 땅과 땅 위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도 보았”으며 사악한 권세와 그 수를 비교하여 볼때 “그 수가 극히 적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이 어린 양의 교회의 회원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 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들은 지상의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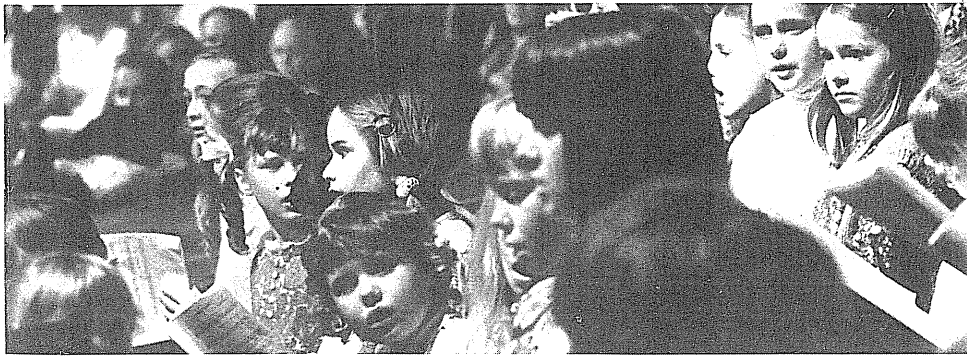
이제 감히 말씀 드리거니와 우리는 이미 세계의 교회로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세계의



교회로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입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약의 백성들이” “지면의 모든 나라에 임할 것”임에 우리는 온 나라에 나아가야 할 사명을 지며 모든 나라를 교회로 인도하고 저들에게 저들의 구속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여 저들도 아버지의 왕국에서 구원의 상속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미국에 있으면 미국인의 교회요 캐나다에 있으면 캐나다인의 교회가 되고 호주에 있으면 호주인의 교회 영국에 있으면 영국인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계의 교회이며 이 복음은 만인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분의 주님, 하나의 신앙, 하나의 침례, 그리고 단 한 분의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이 계시 뿐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참된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참 교회”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교회가 이 세상 어디에 존재



하든지 같습니다. 오직 하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영광의 빛 속에서 해의 영광을 상속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 밖에 없으며 그 하나의 길을 방편으로 할 때 비로써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해의 영광을 쟁취 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침례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며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존경하며 다만 저들도 우리가 계시를 통하여 얻은 지식의 빛을 더욱 더 얻게 되기를 바랄 뿐이며 이로써 회복된 복음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관리합니다. 복음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악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동시에 이 세상이 갈구하는 으뜸되는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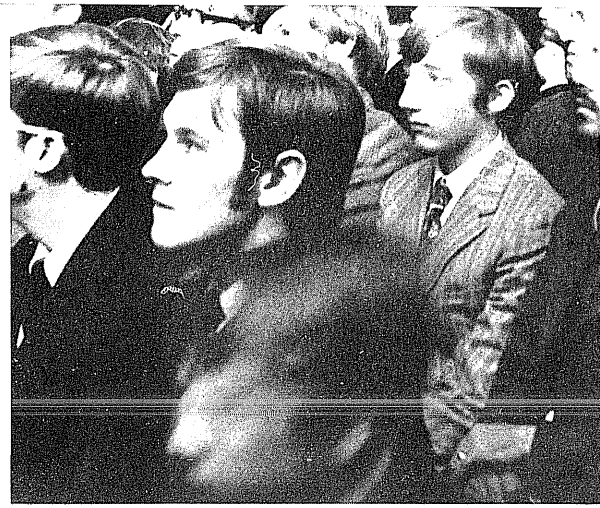
교회 회원들이 이 교회가 범 세계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됨에 따라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책임이 더욱 더 무거워 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사람을 다스리고 또 훌륭한 성도가 되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며 저들은 이 원리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원이 어디에 있든지 올바른 원리를 배워 스스로를 바로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성도들이 복음이 충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각각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저들이 준비를 갖추기만 하면 온갖 축복과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한 것이라도 선한 것을 받을 준비를 갖춘 성실한 성도들에게는 땀가없이 허가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서 발전하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전을 지어 주님께 헌납하였고 그 신전 안에서 의식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여러분의 승영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시온의 스테이크가 들어서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영국의 모든 성도들은 스테이크나 와드를 다스리는 중책을 맡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나라의 수많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업도 이나



라의 젊은이들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의 교회의 전도가 참으로 밝다고 보고 있으며 영국의 모든 성도들이 각각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 앞으로 맡겨질 더 큰 구원의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성도들이 가장 철저히 이행해야 할 문제는 계명에 충실하여 성신을 동반자로 삼을 수 있는 생활을 이행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진정한 뜻에서 하나가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는 일을 더욱 번창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과 이 세상이, 우리의 이 사업이, 참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사업이 참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녕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며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는 주를 믿고 주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의 복지와 축복을 위하여 그의 영원하신 복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메시지야말로 소망과 기쁨과 구원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과 약속하거니와 만일 여러분이 하늘의 빛을 좇아 살며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이 세상과 또 장차 올 세상에서 화평과 기쁨을 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폐회사

●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잊을 수 없을 만큼 훌륭했던 영국 땅에서의 연차 대회가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대회가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열리게 될 대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으며 영과 진리 가운데 주를 경배하고자 모였으며 주의 영과 선하심을 나누고자 한 자리에 모였으며 그러한 우리의 바램과 기대는 어그러지지 않았읍니다. 주는 우리들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고 넘쳐 흐르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해들은 간증과 권고의 말씀,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르침 받은 교리는 모두 바르고 선한 것이었으며 이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님께서도 이를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읍니다.

이제까지 전달된 모든 말씀 위에 다시 나는 나의 간증을 더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번성하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브리감 영, 히버 씨 김별, 윌포드 우드럽이나 기타 다른 사도들이 주님의 음성에 좇아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졌을 때 참으로 많은 선교의 결실이 하



나님의 창고 안으로 걸우어져서 정리되었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 오게 된 성도들은 즉시 미국에 있던 성도와 단합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을 맡는 지도자가 되었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발전과 성장의 새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온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차비를 있는 힘을 다해서 차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온의 스테이크와 신전이 주님께 헌납되었고 여러 개의 스테이크 및 와드 건물이 건립되었으며 선교 사업의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야흐로 영국에서의 교회 시대를 구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을 모아 증거하고 있으며 사실 세계 어느 곳에서 보라도 이곳에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향상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온 세상을 위한 누룩의 역할을 하고 거룩함의 숨결을 온전히 채울 수 있게 될 때까지 이와같은 성장과 발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만인을 위한 것이며 교회는 온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질 것이고 인자가 다시 오시기 전 땅 끝까지라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건설해야 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던지 말일성도는 마땅히

세상 사람들을 위한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어둠을 비추주는 밝은 빛이며 복음의 빛을 받아 들이는 자는 모두 대하게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에 계신 여러 성도들의 책임은 생활을 통하여 이 사업의 참됨과 거룩함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갖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두 복음의 뜻에 쫓아 생활하여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을 쟁취하시기 바라며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 때회를 마치기 전에 나는 이제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사업이 참되다는 간증을 다시 한번 들려 드립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이므로 그릇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는 두번째로 손을 뻗히사 교회 안으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계시며 온 땅에 성도의 무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의 사업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가졌던 것과 같은 극복해야 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앞으로도 우리가 겪을 것이나 주의 사업은 마침내 성취되어 주가 의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서 승리의 개가를 울리게 할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는 최후의 승리를 걸우는 것이며 우리의 이 사업은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업과 나의 작은 할아버지가 되시는 요셉 스미스의 생애 및 그의 하신 일, 친 할아버지이시고 축복사였던 하이람 스미스에 대하여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과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인 것을 압니다. 나는 이 교회야말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와 영원한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압니다.

여러분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께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낱알이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진리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여러분께 의로움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

영국 선교 사업의 추억

휴 비이 부라운
십이사도 정원회

● 몇 가지 마음에 사무치는 이유로 해서 영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은 나의 마음에 큰 비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나의 생활은 내가 젊은 선교사로 가 있던 1904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나의 간증과 삶에 큰 힘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제 기수반 모임에 초대를 받아 그곳에서 겪은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04년에 나는 선교사로 그곳엘 갔습니다. 당시 선교부장으로 영국 선교부를 관리하시던 히버 제이 그랜트 매관장님이 나를 놀위치로 보내셨습니다. 놀위치에 도착해서는 그곳 지방부장의 지시를 받들어 케임부릿지로 갔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다운스 장로(당시 그분은 마흔 다섯이었고 나는 스물 하나였습니다)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다운스 장로님은 형제님이

그곳에 도착한 다음 임기를 마치고 블란서로 떠날 것입니다. 그 근처 120마일 지역 이내에는 말일성도가 하나도 없으므로 형제님이 그곳에 거주하는 유일한 말일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먼저 그곳에 선교사로 가 있던 부라운 형제는 총으로 위협을 받으며 쫓겨났고 그들은 부라운 형제를 쫓아내면서 다음 번에 물론 선교사가 케임부릿지로 들어오면 발견 즉시 사살해 버리겠다고 했지요. 들으면 반가워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전혀 반감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케임부릿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온통 온 거리에 써 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우리들에 대한 염오를 그대로 써서 붙였고 그것이 우리를 맞는 환영

인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기차 정거장에 있는 커다란 그림은 수염이 긴 남자와 누운 여자의 그림이 들어 있는 것으로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실시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대한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다운스 장로는 내게 전도의 요청을 전하고는 다음 날 떠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나는 아침 내내 온 마을을 방문하며 돌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내가 문을 두드리면 내다보고는 문이 부서지도록 닫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도 나는 전도를 계속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나는 적지 않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 토요일에는 전도 계획이 없는 날이지만 종일 전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요일 오전도 그 모양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



유럽 선교부 선교부장과 그 부인. 2차 대전이 시작될 때 소개되었음. 1940년 성탄절에 당시 12사도였던 조셉 필딩 스미스 백에서 모임을 갖다.

뒷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윌레스 에프 토론토(체코 선교부), 에이 리처드 피터슨(뉴웨이 선교부), 휴 비이 부라운(영국 선교부), 마크비·갈프(정말 선교부), 프랭클린 제이 머다크(베넬란드 선교부), 마이론 다그라스 우두(서독 선교부), 거스티브 오우 라슨(스웨덴 선교부)

가운데 줄: 마가렛 피터슨, 조셉 이 이반스(불란서 선교부), 환 맥케이, 토마스 이 맥케이(스위스-독일 선교부), 제시 에반스 스미스, 스미스 대관장, 노마 에반스, 지나 브라운

앞줄: 버지니아 라슨, 크레이어 머다크, 마다 토론토, 거트르드 갈프, 에블린 우두

아온 나는 극도로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케임부릿지로 보내신 주님의 처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국식 화로 곁에 앉아서 불 옆 벽에 걸린 큰 벽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쳐다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에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에 사는 부인이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여기 부라운 장로 있습니까?” 아! 네, 여기 있습니다고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 앞 방에 계신데요 들어 오십시오.”

그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부라운 장로요?”

나는 그의 거친 음성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농촌 태생의 머뭇거리는 몸짓으로 나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

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전도지를 우리 집 문에 두고 왔오?”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뒷말을 이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 열 일곱명의 가장이 영국 교회를 떠났다고 우리들은 모두 우리 집으로 가서 큰 방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대 식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우리집 큰 방은 어른 아이로 꽉 찼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새로운 교직자를 보내 주시도록 일주 내내 주님께 기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나는 또 실망했습니다. 나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도지를 문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우리의 새로운 교직자가 되어주지 않겠소?”

자 나는 그때 선교사가 된지 사흘

도 안되는 몸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업무에 대해서조차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저들의 교직자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쨌든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겠습니다”고. 그리고는 그 대답을 한 후부터 실제로 그들의 모임에 갈 때까지 나는 내가 대답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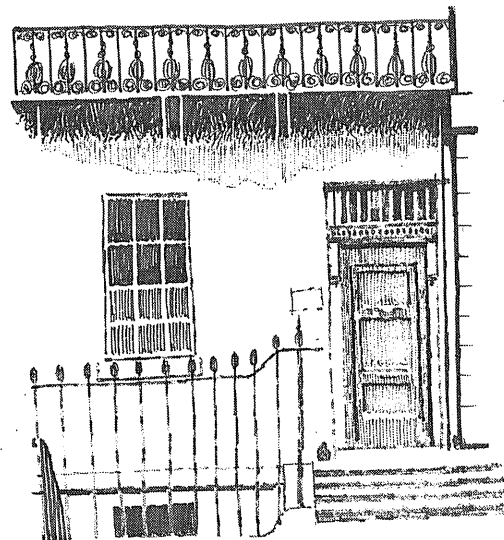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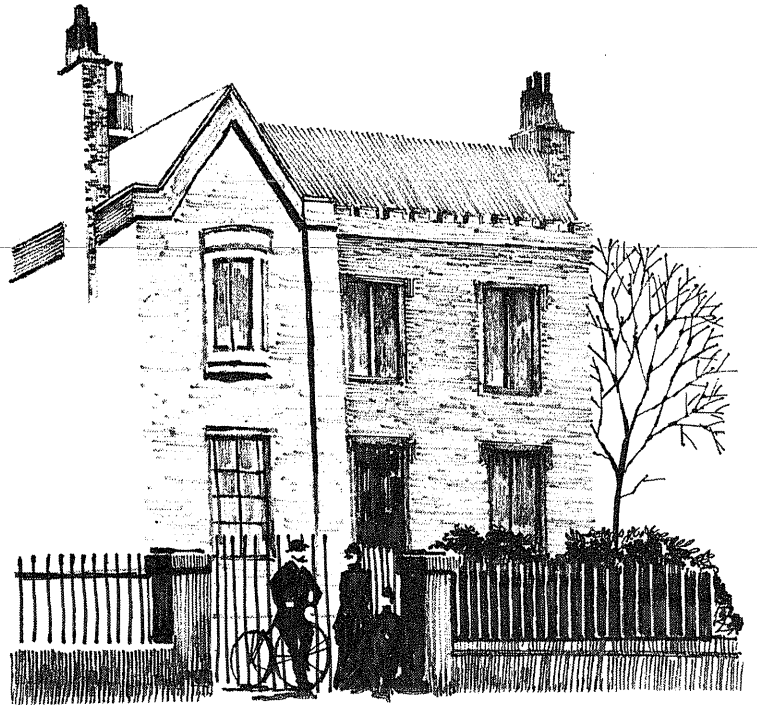
그는 떠나면서 나의 식욕까지를 전부 가져 갔습니다. 나는 그 집의 부인을 불러 아무 것도 먹지 않겠다고 일렸습니다. 나는 나의 방으로 올라가서 잠자리를 뿔었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부탁드렸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내 어깨에 짐을 풀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일어나서 잠자리로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잠이

루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주인댁 부인께 아침을 들지 않겠다고 전하고 케임부릿지 대학으로 올라가 오전 내내 서성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오에 집으로 돌아와 점심도 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산책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내 머리 속에는, “저녁에 그곳에 가서 새로운 교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뱅뱅 맴돌았습니다.

여섯 시에 방으로 돌아와서 명상하며 염려하며 방황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음날 사형을 받게 된 사람과 밤을 지낸 일이 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그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세세히 관찰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무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밤을 지낸 날의 내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전의 시간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시계가 6시 45분을 가리켰고 나는 천천히 일어나 긴 프린스 알버트 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쓰고 단장을(그 시절엔 그것이 매우 유행이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장갑을 들고 성경을 겨드랑이에 끼고는 그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성공한 유일한 접촉의 장소로.

정문에 막 도착하자 전날 찾아왔던 신사가 마주 나왔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절을 하며, “목사님 어서 들어 오십시오.”라고 인사했습니다. 내가 일찌기 그런 호칭으로 불려진 때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안에 사람이 가득한데 내가 들어서자



브라운 장로가 영국에서 처음 선교 사업을 할 당시 리버풀 홀리 로드 10번지에 있던 영국과 구라파 선교본부

1937년 브라운 장로가 선교부장의 부름을 받아 영국에 갔을 때 선교본부는 런던 고든 스퀘어 5번지에 위치해 있었다.

새로운 교직자에게 경의를 보인다고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극도의 공포심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지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났고 찬송에 관해서 몇 마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오 높은 영광 보좌에”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청중은 멍청한 눈으로 나를 쳐다 보았습니다. 어쨌거나 노래는 시작되었고 꼴 사나운 카우보이의 어설픈 독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순간 저들을 각각 결상에서 내려 앉아 뒤를 보고 무릎을 꿇게하고 기도를 하도록 해야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회중에게 지시를 했고 회중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저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애를 통해서 두번째로 시도한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다시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기도로 간구했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무리는 영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이 저녁에 모두 참진리를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시여 이들이 바라는 바를 저는 준비하지 못하였으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를 아버지께서 도구로 쓰시던가 이 일을 직접 감당하옵소서.”

기도를 끝냈을 때 회중의 대부분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나도 울었습니다. 나는 현명하게도 두번째

의 찬송을 권유할 수 있었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사십 오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나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까닭에 모임이 끝난 다음에는 회중이 모두 물려와 내게 악수를 청하기도 했고 열싸 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을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던 나의 발걸음은 비틀걸음이었으나 그날 밤 집으로 행하는 나의 발걸음은 흠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걸우어 주셨던 것입니다.

삼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그 모임에 왔던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침례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교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 몇몇 분을 나는 최근에도 만났습니다. 이제는 연로하신 분들이지만 만나면 한결같이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은 일이 없노라고들 합니다.

영국의 선교 활동 초기에 나는 그랜트 대관장님과 놀라운 경험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1905년 나는 어쩌다가 신장염에 걸렸습니다. 고통이 극심하였고 당시 나를 진찰한 의사는 집으로 돌아가 휴양하는 길밖에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

하다고 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리버풀에서 내가 일하고 있던 놀위치까지 오셔서 나를 해임시켜 집으로 돌려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들은 나의 가슴은 메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랜트 대관장님께, “그랜트 부장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즉시 병고침을 받을 것 같습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관장님은, “그런 신앙을 자네가 가졌으면 되었네”라고 하시면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신장에 관한 질병을 앓지 않았습니다.

세계 일차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캐나다 정규군 장교로 영국에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후 1937년에 나는 다시 영국의 선교부장으로서 부름을 받아 당시 대관장이시던 그랜트 대관장님과 함께 온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전 선교부장이셨던 조셉 제이 캐논 형제와 영국 북부 지방을 여행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프레스턴을 찾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백년 전에 침례를 베풀던 리블강에 나가 보았고 그 강둑에서 훌륭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이 루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께서 우리와 합류하였고 당시 대관장단 서기를 맡으셨던 조셉 앤더슨 형제님과 같이 훌륭한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프레스턴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영국 선교사들의 명예이기도 한 “콕피트”에 함께 했고 초기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백스힐 예배당에도 들렀습니다.

회복의 메시지

영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영국 선교 본부가 있는 고든 5번가에 들렀고 그 건물 앞에서 캐논 선교부장은 내게 영국 선교부의 사실상의 열쇠가 되는 선교부 열쇠를 인계하셨습니다.

1939년 초기에 나는 전쟁이 임박했음을 예감하고 미국 해운청에 주선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코자 선박을 대비시키게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나는 전화로 백여척 선박의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영국을 벗어나려는 사람의 수가 수십만이라고 하면서도 일단 사전에 정리된 계약은 쉽게 이행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선교사를 런던으로 불렀습니다. 삼일 동안의 모임을 갖고 출항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다섯 선교사를 제외한 선교사 전원 이 배편으로 미국으로 돌아갔고 다섯만 나와 잠시 그곳에 남았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은 그날이 있기 30여 일 전에 이미 떠났으며 그때에 이미 우리는 전쟁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때 부러운 자매와 나의 자녀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선교사 다섯명을 데리고 남았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타고 간 배보다 조금 일찍 떠났던 배들은 대서양에서 요격을 받아 여객과 승무원이 모두 실종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시간이 내게는 깊은 곁손을 상기시켜 준 인상깊은 세월이었습니다. 장로들은 모두 한 배에 실도록 내가 지시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1940년 2월에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후 2년 후에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는데 나는 다시 돌아간다는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군인 담당까지를 겸하는 직책을 맡았던 것입니다.

당시 런던의 공습의 피해가 극심했던 까닭에 나는 여러 가지 흥미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교회 주변의 거의 모든 큰 건물은 폭격으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고든 5번가는 완전히 폭격에 날아갔고 신 선교 본부는 나이팅게일가 149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내가 라벤스리에서 비행기의 폭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불과 1킬로 이내의 지점까지 육박해 왔고 그곳 철로 정거장을 목표로 곧두박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전기가 차단되면서 라벤스리 건너편이 맹타를 당했고 순식간에 열 다섯 채 썸의 가옥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의 엔진이 멈춰진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잠시 후에 일어날 사태를 빠르게 예견했고 즉시 몸을 날려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선교부의 유리창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날라갔습니다.

우리가 있던 지역의 폭격이 점점 심해져서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그곳을 버리고 버밍엄으로 선교부를 옮겨야 했습니다.

결국 영국, 아일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스에서의 전쟁은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굳은 간증을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내가 처음 선교사로의 활동을 시작했던 1904년에는 영국 땅에 일곱개의 선교부와 스테이크 아홉개가 서게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

에이 디아돌 터틀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태버나클 합창단의 오묘한 음악을 들으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빌어 이 교회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메시지는 회복된 복음입니다. 제가 회복에 관하여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구조와 권세에 있어서 이 교회



는 예수님이 생존하여 이 땅에 계셨을 때 친히 세워주신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초기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는 그 이념이 다릅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의 시대”라고 하신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메시지의 주춧돌이 되시는 분은 거룩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는 불사 불멸의 시초가 되시고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그는 마

리아의 아들로써 유한성을 상속 받았음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의 속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한 10 : 18)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띠를 끊고 부활의 시초가 되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교전 15 : 20 참조)

그는 무덤에서 일어서서 그의 육신을 다시 취하셨으며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사도

행전 1:3, 9, 11)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곧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며 그의 속죄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의 원리와 의식을 지킬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는 예언된 것과 같이 절정의 시기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담에

이러한 자리에서 다시 속죄의 희생을 상기시키시고자 구세주께서는 성찬의 의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3-26)

우리는 그리스도가 거룩하신이의 아들이심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가 오늘날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언의 말씀대로 두번째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열두 사도를 부르시고 그의 교회를 세우신 후에 교회는 이내 그 예언된 말씀대로 배도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관리하던 신권의 권세는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는 불신앙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압력으로 인하여 그나마 잔해가 남았던 교회의 조직은 완전한 배도에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배도가 경전에는 예언되었었으며 회복의 시기도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사도행전 3:21)

1820년 봄, 채 열 다섯도 되지 않은 소년은 “심각한 생각”에 사로 잡히게 되었으며 어느 교회가 옳은가를 골뎠히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경전의

말씀에 좇아 “하나님께 구하시기로” 했습니다. (야고보 1:5참조)

“.....바로 이때 나의 머리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무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2:16-17)

이 놀라운 시현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의 방문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들의 존재는 다시 한번 온 세상에 확실히 입증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들이 살아계시고 각각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 시현과 방문이 있고 난 뒤에 하늘의 천사가 다시 요셉 스미스에게 다른 권세와 축복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언하셨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번역도 하셨습니다. 옛 책과 근대의 책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신전과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하는 계시자였습니다. 그는 권위와 권세를 갖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자로서 갖추어야 할 온갖 자격을 구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왕국의 열쇠”를 인수 받으셨습니다. 이 사도의 권세로서 그는 참된 교회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이 세대가 너를 통하여



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희생의 율법이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희생에 관하여는 모세가 유월절에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해의 첫 소산인 숫양을 고르되 흠없는 것을 택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피를 내되 뼈는 꺾지 않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될 때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돌이킬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의 피흘림으로 인하여 희생의 법은 중지된 것입니다.

여 나의 말을 전해 받으리라” (교성 17 : 6)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요셉 스미스보다 더 위대했던 예언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옛 판에서 물문경을 번역하셨습니다. 물문경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이의 견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이 책에 관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그 책, 곧 내가 명한 부분만을 번역하였으니,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같이 그 번역은 참되도다.” (교성 17 : 6)

버몬트에서 태어난 들판의 소년이요 개척자 시대에 뉴 잉글랜드에서 자라난 소년이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별로 인기가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기와는 관계없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으며 이를 부인하는 어떠한 획책이나 시도도 이 사실을 뒤집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영원한 안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태어난 이후에 이 지상에 살게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는 요셉 스미스를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사명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문경과 그가 회복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참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습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

회가 참되다고 선포하며 이 교회에 오 늘날도 살아계신 예언자가 머리가 되어 계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유일하고 참된 교회요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느니라” (교성 1 : 30참조)

현재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고 주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분입니다. 구십 세가지났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연령에 관하여 얼마큼 어려야 한다거나 늙어야 한다고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키가 크고 작은 것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얼마큼 뒤야야 한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와같이 부름을 받으셨고 합당하게 성임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대관장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즐거울 때는 보통 사람들처럼 웃기도 하십니다. 상처를 입으면 피를 흘릴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찬 그의 인간애는 남의 깊은 슬픔을 보았을 때 같이 울어 줄 것입니다. 그는 병을 앓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남 다른 일면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것입니다. 나는 이분을 잘 압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는 평생을 봉사하셨으며 원수라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아끼시어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을 돕는 보좌들을 또한 사랑하고

십이사도를 사랑합니다.

바로 이제 설명드릴 이것이 이 교회의 나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앞으로 나갑니다. 이 교회의 전진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온 땅을 짝 채울 때까지 성장과 발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교회 지도자의 지시를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구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곤경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의심하며 많은 사람이 배도하여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고 정직한 자는 우리 안에 남아 승영예의 발돋움을 굳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공허한 것이 이상하다고들 합니다. 또 저들은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가를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배도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또한 복음의 회복이 있었던 것도 압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신권의 권능으로 세워졌고 예언자가 이끌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과 운명을 알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쁘게 무엇이라도 바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을 압니다. 우리는 성공합니다. 이 위대한 성업을 이루는 광장으로 우리는 선한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

너희는 두려워 말라



알빈 아아르 다이어

십이사도 보조

● 옛 예루살렘의 어느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전에 저들을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외쳤고 다시 오시기는 하지만 만사가 다시 이 세상에 회복될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태초로부터 약속되었다고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은 전체적인 회복의 한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41년 전 오늘 이 땅에 조직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확신과 간증을 재정비하는

바입니다. 그때 주는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주의 종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복음의 회복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사 저에게 영감을 내려 주셨고,

“이전부터 마련되어 있던 도구로 물몬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능력을 저에게 주셨나니

“물몬경에는 타락한 어느 백성의 기사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도 전해질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 있느니라

“이는 영감으로써 주신 것이요 천사들의 성역으

로 다른 사람에게 확인된 것이니 저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포되어, “거룩한 경전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부르시사 옛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 자신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 증명하시며,

“이로써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교성 20 : 7-12.)

그리스도의 교회는 소위 “때가 찬 경륜의 시대” (교성 112참조)라고 일컬어지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회복되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가 온전함을 이룰 때 열쇠와 예지로서 아담 이래의 온갖 경륜의 시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서 어쨌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상에서의 마지막이 될 마지막 날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과연 언제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생각하노라면 나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항은 주가 하신 다음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 한 분만 아시느니라”(요셉 1 : 40)

그러나 우리들의 주변에는 놀라운 일이 임박했다는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번째의 문제가 되기도 하겠읍니다만 예전대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살면서 적어도 또 다른 경륜의 시대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은 명백하게 인식해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다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 및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경륜의 시대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주님께서도 현재를 특별히 준비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주가 가르침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 기도하라.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라. 그의 놀라운 신 업적을 백성 가운데 알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땅

위에 퍼져 그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라. 또 인자가 밝은 영광의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 올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여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원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존귀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옵니다. 아멘”(교성 65 : 4-6.)

주가 계획하신 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절정에 이르면 마침내 인자가 오시는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게 되는 세번째 문제는 이방인의 시대라는 문제이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로서 이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 만일 저들이 부름에 순종한다면 온 땅의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니일 13 : 14 참조.)

주는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때가 열만큼 절박한가에 관하여,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면 빛이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리니, 이 빛은 나의 충만한 복음이 되리라”(교성 45 : 28)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계시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들이 빛을 깨닫지 못함이요 인간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내게서 돌이키는 연고니라. (교성 45 : 29.)

그러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시기에 관하여는 경전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빛이 그 광채를 발하기 시작할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 줄 비유같이 되리라.

“곧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 보나니 너희 눈으로 보고 그 싹이 나기 시작하여 잎이 아직도 연하면 여름이 가까웠다 말하는도다.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보게 될 그 날에도 이와 같으리니 그때에 가까워움을 알리라”(교성 45 :

36—38.)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말일의 혼란과 가증함은 사실 여러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되었습니다. 주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하신 당시의 말씀은 어떠한 뜻에서는 상당히 직선적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라 나는 나의 선민을 위하여 말하노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각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르소서 신전과 유대인의 멸망에 대하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또 당신의 임하심과 세상의 종말 곧 세상의 끝이 되는 악인의 멸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야오리까?”(요셉 스미스서 1:4.)

그때에 주가 유대인에게 일어난 일에 관하여 들려주신 대답은 너무도 구체적이며 말일의 징조에 관하여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들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으리라

“보라, 나는 나의 선민을 위하여 말하노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각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거듭 이르거니와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굴복당하지 아니 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듭 이르노니 이 왕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때에 종말 곧 악인의 멸망이 임하리라”(요셉 스미스서 1:28—31.)

성도들의 마음에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시고자 주님께서는 계시를 따로 주셨으며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나는 나의 맺음 말로 삼겠습니다.

“보라, 이를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내가 존재함 같이 진실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은밀한 방에 있는 원수가 너희 생명을 노리고 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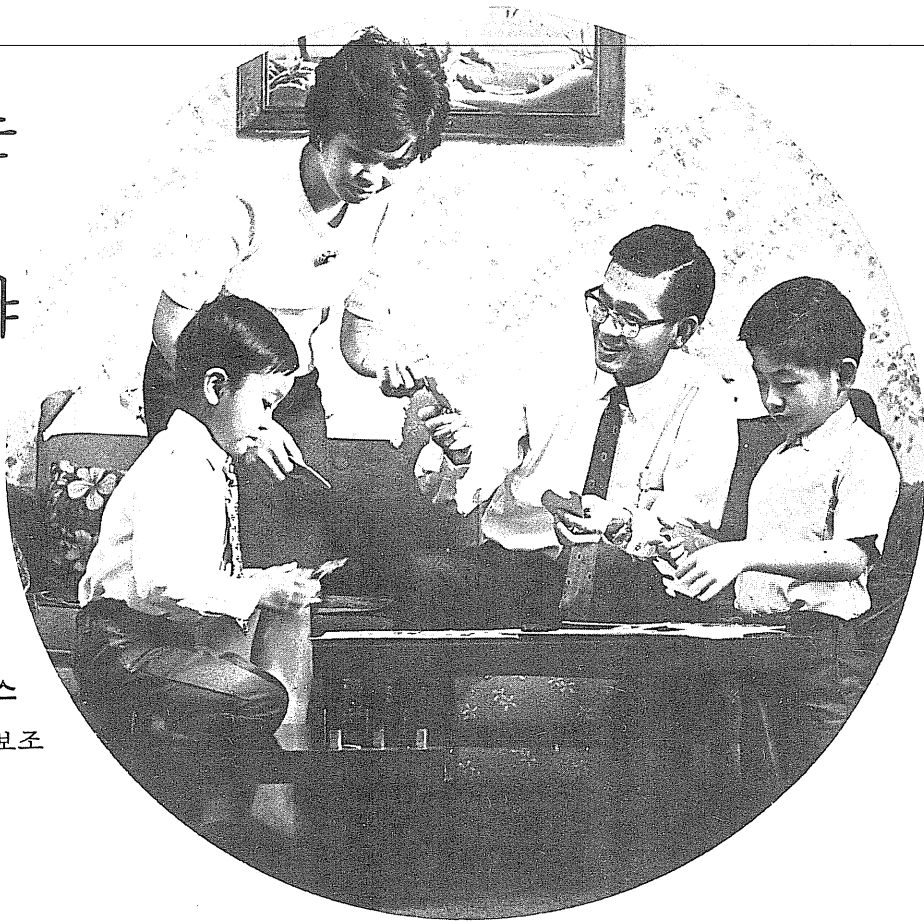
“너희가 먼 나라에 전쟁이 있음을 들으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먼 나라에 큰 전쟁이 있으리라 말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자기 나라의 인심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너희 기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슴에 저해를 쌓아 두라. 인간의 죄악이 땅을 진동시키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너희 귀에 대고 말하듯 저희 죄악으로써 너희에게 이 일을 드러낼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교성 38:27—30.)

함께 모이는 것과 주께 성실한 것이 장차 우리가 당면할 세상의 간악함을 대적키 위한 요새가 된다고 하시며 주는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온 세상에 고루 손을 뻗치어 온 나라를 피이려 하는고로 주는 만사에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려 먼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교성 5:14 참조)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나는 회복의 메시지가 참되며 우리가 충실할 때 장차 이를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가르치는 대로 생활해야



매리온 디이 행크스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 지난 주일에 들은 헝클리 장로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금방 훌륭한 말씀을 전해주시신 분과 다른 분과의 대화를 기억하는 대로 들려 드렸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설교였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네.”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분이 “자네도 훌륭한 말씀을 전할 걸세”라고 했다는 겁니다.

생각전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이 오늘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들은 말씀만큼 훌륭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바를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일요일 로간에서 펙 흥미 진진한 여교사와 한 소녀와의 대화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바를 생활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그랬더니 소녀는 “아 그거요, 저 자기가 할 말을 중

이에 적어 가지고 실제로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전할 때까지 매일 읽고 연습하는 것을 뜻합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가르치는 바를 생활한다는 이야기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풀어서 몇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어떤 날 저녁, 신병으로 입원한 여동생을 찾아 병원엘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대 곁에는 동생의 남편과 가족들이 둘러 서서 가정의 밤을 갖고 있었으며 외국서 막 선교사를 끝내고 돌아온 그 집 넷째 아들이 모임의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틈에 끼어 모임을 갖고는 그토록 훌륭한 모범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와 우리가 가르치는 바를 보다 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동생을 다시 찾아 가서 동생과 함께 주님께 기도를 드렸으며 그때 기도를 드리던 그 엄숙함과 충만함으로 여러분께 나의 간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전파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 대부분의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쳐야 하며 자녀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서로 아껴야 하며 자녀는 베냐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씩 가정의 밤을 갖고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내는 십일조를 함께 계산하며 성찬식에 참석하여 가족과 함께 예배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금식해야 하며 금식한 만큼을 지부장님께 드려서 궁핍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가정 복음 교육 교



사를 맞아 들어 저들의 가르침과 인도 하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믿음으로 단합되어야 하며 함께 읽고 함께 배우며 함께 일하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식탁에서의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교회나 학교에서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계획하고 일해야 하며 우리 세대의 전통과 가풍을 이루는 데도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언급한 모두를 우리는 배웠으며 또 그대로 살라는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명이나 권고나 강제성을 띄운 의무가 아니며 거룩한 칭호를 받을 만큼의 격조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벼운 권유이며 기회와 특권과 사랑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며 가능하다면 가정의 밤의 축복을 누리자고 권유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가질 수 있고 가족과 가질 수 있으며 또 약속된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명하고 서서 상실하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에도 훌륭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이 찬송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지요. 내게 세상의 집과 상냥하고 친절한 부모를 주셨어요” 또 오늘 아침에 간증으로 청년들이 불러준 찬송가에도 훌륭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저 돌이 다진 반석위에 집을 짓고…… 그 돌은 명예가 되고 덕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리”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불러준 찬송가 “서로 사랑하자”라던지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에도 훌륭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유대, 그리고 우리들 서로서로의 유대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속된 것과 더러운 것들로부터의 침해를 막는 성역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하고도 창의적인 유대를 묶는 부드러운 끈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고 가르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이러한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Empedocler on Etna 를 빌어 마튜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갈구하나 내면을 무시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으니 이 말씀을 듣고 한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의 유대를 내면에서 살피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년 전 쯤이라고 기억됩니다. 어느날 이른 아침에 의사로 개업을 하고 있는 절친한 친구의 전화를 받았읍니다. 그는 태어나 사경을 헤메는 자기 아들을 와서 함께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조산아 보육기에 손을 넣어 작은 어린 것을 팔에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래리의 어머니와 함께 앉아 그저 기다리고 있었고 친구는 아이를 편하게 낚고 있었읍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조산아 담당자가 와서 아이가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그 어려운 사경을 뚫고 건전한 정신과 영을 갖춘 인간으로의 삶을 시작한 것



입니다. 다만 다리의 발육만이 정상이 아니어서 결국 래리의 다리는 그가 얼마나 복된 삶의 주인이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고증물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 아이의 형이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이 두 형제가 공항에서 감격적인 재회를 하는 모습을 지켜 본 아이의 삼촌이 래리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해서 다행스럽게도 내가 그 편지를 읽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 편지를 인용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간청을 했고 나의 그 간청에 그 쪽에서 선선히 응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막 짐사에 임명된 그 말일성도 소년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기가 배운 교훈에 따라 생활하는가를 여러분이 보고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래리!

이제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었고 그것보다도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너희의 모습을 기억 속에 새기게 되었다.

“내게 감격과 눈물과 진한 영상을 심어준 멧쟁이 소년 래리 엘스워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나는 가졌고... 그 아이는 나의 이 감사함의 이유를 알고 있지 않으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의 시초는 2년동안 먼 나라 칠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훌륭하게 선교사로 봉사하고 돌아오는 형을 기다리고 서 있는 공항에서부터 비롯된다. 너도 잘 알겠지만 이 소년에게는 이년의 세월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길고 지루했을 것이다. 소년은 흥분으로 창백하게 된 채로 앞을 내다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의 형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만면에 웃음을 담았다. 마치 등을 켜듯이!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빛을 내는 회전등과도 흡사했다.

“그때 누군가가 내게 이 훌륭한 소년이 이년동안 푼돈을 모아 30불이나 하는 최고급 농구공을 사랑하는 형의 선물로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다른 어느 누구도 농구공 기금에 회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형에게 선물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의 의견이었으니까. 결국 그는 돈을 써버릴 수도 있었지만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저축했던 것이다. 그렇게 형을 사랑했던 거다.

“그리고 나는 이 훌륭한 소년이 말 한마디 없이 만면에 행복한 웃음을 담고 집으로 돌아온 형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졌다. 먼 곳에 홀로 떠나가서 장한 일을 이루고 돌아온 형과 그를 기억하고 계획하고 기다린 동생, “래리, 너는 장한 소년이다. 나는 네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네게는 도량 넓은 마음과 따스함이 있으니 말이다. 물론 다른 아이들이 너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걷고 더 오래 놀겠지만 이것은 저들이 너보다 수월한 탄생의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인한 것이다. 그것이 전혀 저들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네게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 하늘 아버지께서 네 육신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주셨다는 사실이 바

로 그것이다. 누가 집에 사느냐 하는 것이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바라보고 큰 교훈을 이 삼촌이 얻게 되었으니 래리에게 감사를 돌릴 수 밖에 없구나. 고맙다.

사랑하는 삼촌 디코.”

몇주 전 스테이크 부장님이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 함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베살 짜리 아이가 함께 산 꼭대기로 스키를 가져갔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 함께 스키를 하며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들은 그 꼬마 아이가 마치 눈치는 녀가래 처럼 달려가야 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령의 아이에게 그런 스키는 아무래도 무리였던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가 아들을 부축하며 언덕길을 내려 오려고 했지만 열살 또래의 형이 옆에서 거들어 주며 동생을 도왔습니다. 그의 그러한 희생적 봉사는 온 가족의 모임을 즐겁게 했고 사랑과 형제애와 우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훌륭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예만 더 들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년을 두고 우리 집에는 아주 이상한 가정복음 교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래리의 경우처럼 태어날 때 문제를 가졌던 불구의 아들을 동반했습니다. 이 아이는 병어리였습니다. 이들은 늘 단정하게 앉아 언어 아닌 동작으로 교통했으며 사랑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교사와 그의 아들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정을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간단한 조화의 멜로디가 됩니다. 친절, 관용, 예절, 성의, 미소, 희생 정신, 기도, 분별, 봉사, 용서, 협조, 사랑이야말로 말로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가족 심포니의 음률인 것입니다.

가족이 외면상의 가족이고자 사랑과 단합을 잃는다면 그 가족은 진정한 가족으로의 소망과 뜻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관습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가족간의 이해와 사랑을 나누며 영원한 기쁨을 구가하는 단위라고 하는 사실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는 거미줄에 비견되며 가정과 가족은 그 거미줄의 중심이 됩니다. 가정에 있어서 사랑과 가족은 개인의 생활과 사회의 균형을 이루어 주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가족의 유대와 사랑이 죄 많은 이 세상을 구하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라야 어린 아이들은 사랑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만이 자녀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빈 껍데기의 사랑만을 입으로 가르치거나 전하는데서 그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노력하고, 인내를 갖추고 들으며 거저 주고, 관대하게 용서하고 하는 것이 참사랑이며 가족의 유대를 공공히 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내가 권위를 업고 권위를 무기로 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권세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고 다루었으므로 이러한 가르침이 참되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내가 자라난 가정에는 이제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세상적인 재물로 풍족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 나의 가정이 옛날에 내가 자라난 가정과 같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일과 나 개인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개선시켜야 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온통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졌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정보다 더 위대한 처소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 여섯 살 짜리가 기록한 것을 소개해 봅니다. “엄마, 아 글썄 애기 좀 들어 보세요. 난 엄마를 사랑해요”. 아울러 딸이, “아빠. 아빠는 나의 친구고 나는 아빠를 영원히 사랑할테야”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엄마거나 아빠거나 아니 온 가족이 서로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의 능력만큼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서 가족과 더불어 틈이 나는 대로 주어진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르침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이 참된 것을 압니다. 이 복음에는 가정에서의 가족의 참 유대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일본에 있는 친구

● 일본의 이월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몹시 춥습니다. 일본 본토의 북부에 위치한 삿포로나 홋카이도에서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겨울이면 해마다 열리는 눈의 축제를 맞느라고 온통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눈으로 무엇이든지 만들어야 하되 높이는 30척 미만이라야 하고 공룡이라든지 일본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처에 주둔한 군인들이 몰려 와서 가장 큰 눈작품을 만드는 일을 도우며 눈 축제가 되면 온 도시가 은색으로 빛나는 꿈의 나라가 됩니다.

일본은 태평양에 위치한 네개의 섬으로 되어 있으며 그 섬의 이름은 규슈, 혼슈, 시코쿠, 홋카이도이고 그밖에도 작은 섬이 여럿 있습니다. 인구는 약 일억이 되며 사람들은 이 나라를 일본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태양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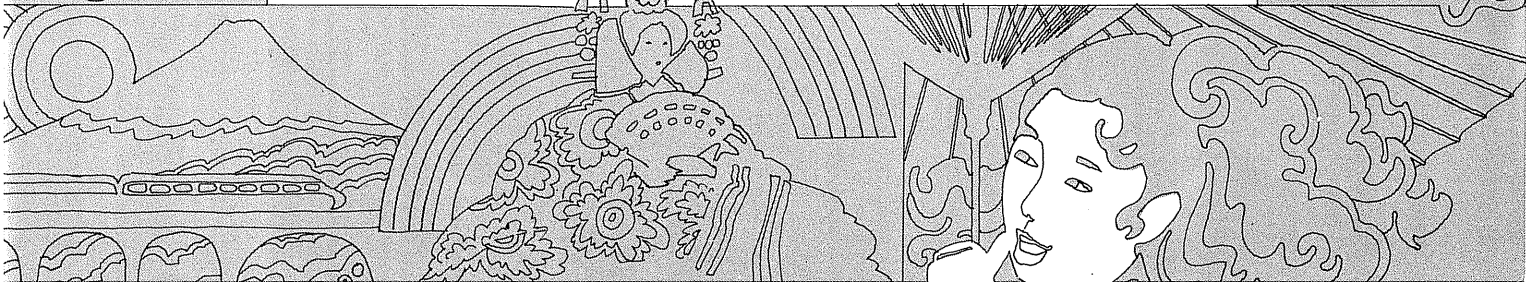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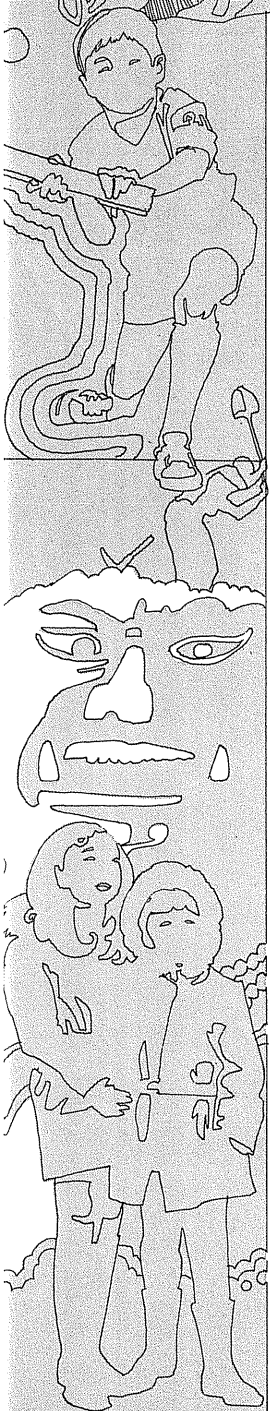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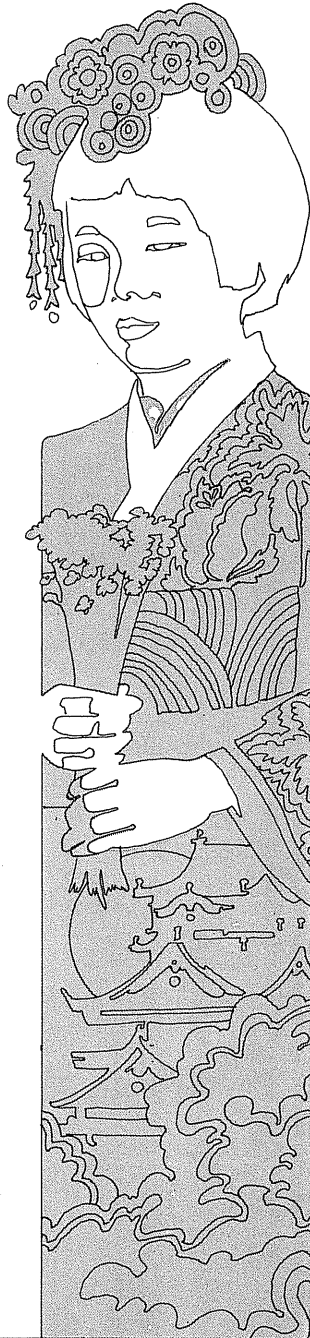
일본 사람들은 온갖 아름다운 것을 사랑합니다. 갓난 아이로부터 노인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식구가 한 지붕 밑에 살지만 아름다운 것들을 진열하는 장소는 반드시 마련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원술에도 뛰어 납니다.

일본의 의무 교육은 구년이며 대개는 걸어서 통학을 하고 학교에 오고 갈 때에는 길이 좁고 또 수레가 많이 다니므로 각별히 교통에 신경을 씁니다. 어린 아이들은 메고 다니는 가방에 책과 점심 그릇을 담아 가지고 다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놀이는 숨바꼭질이며 야구도 굉장히 좋아 합니다. 야구는 일본의 국기입니다. 일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연 날리기를 좋아합니다. 연을 가장 많이 날리는 날은 5월 5일이며 온 가족이 물고기 모양의 연 날리기로 즐거움을 나눕니다. 연날리기 대회가 되면 사람들은 대나무로 갖가지 모양의 연을 만들어 띄우며 대회도 여기 저기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누가 가장 큰 연을 만들어 날릴 수 있는가 하는 시합도 벌립니다.

소녀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행사는 인형 축제일입니다. 곧 3월 3일이 인형 축제일입니다.

말성성도 어린이들에게는 여덟살이 되는 날—곧 저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 됩니다. 일본에는 침례탕이 마련된 교회가 여럿 있습니다. 침례탕이 없는 곳에 사는 어린이들은 온천에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런 온천은 호텔이나 작은 여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찬물에서 침례를 받아야 할 때도 있고 일본을 온통 둘러 싸고 있는 바다에 나가서 침례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





친구가 친구에게

하워드 더블류 헌터
십이사도 정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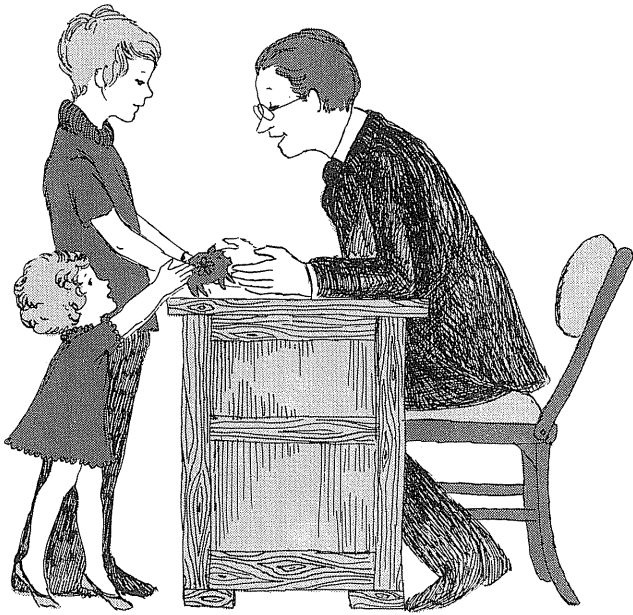
●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어디에 살고 어떤 옷을 입거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검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가진 휘지 아이들도 사랑하시고 다정한 옷을 입은 사모아나 통가나 타이티의 아이들도 사랑하십니다. 이 아이들은 덴발로 따뜻한 남태평양의 땅을 질주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짧은 바지와 타이와 세타의 교복을 입은 영국 아이들도 사랑하시고 서양식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신을 벗는 대한민국의 아이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검게 햇빛에 탄 살갗을 한 남미의 아이들도 사랑하십니다. 또 영롱한 복장의 레이멘인 아이들도 사랑하시고 저들의 무용도 즐겨워 하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이제 내가 이야기한 아이들이 어떻게 닮았는지 이야기해 주겠어요. 통가의 월

요일 저녁에는 딸페라고 일컬어지는 통가의 주택 안에서 통가의 가족이 가정의 밤을 준비합니다. 저들은 우리들과 똑같은 공과 책을 가졌고 온 세상의 성도들도 똑같은 책을 가졌어요.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양심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소중한 지침이 되어주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려고 애쓰십니다. 저들은 놀이도 즐기고 노래도 하며 특별한 재주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정의 밤 순서에서 이런 활동을 즐깁니다.

잘 시간이 되면 온 나라의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알프스 근처의 아이들은 폭신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또 다른 아이들은 오막살이의 얇은 요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나라에서 드리는 기도를 날날이 모두 들어 주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초동협회사 주일학



교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참석해서 똑같은 노래를 배우고 똑같은 공과를 배웁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예쁜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아이예요”라던가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매년 2월에는 어린 아이들이 모두모두 돈을 모아 어린이 병원에 있는 친구들을 돕습니다. 어떤 아이는 빵을 구워 팔아서 오백원을 벌어가지고 어린이 병원에 있는 친구에게 전해달라고 했지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며 온 세상의 어린이는 하나로 단결합니다.

어디에 살던지, 어린이가 맨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지, 다른 순서를 맡게 되면 무섭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순서를 끝내고는 아빠 엄마가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고 끌어 안아주면 모두모두 좋아서 가슴이 벅차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여덟 살이 되면 칠펜을 받습니다. 예쁘게 지어진 예배당 안에

있는 훌륭한 칠펜에서 칠펜을 받기도 하고 눈덮힌 산 아래 있는 호수에서 받기도 하고 작은 강가에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칠펜은 늘 하나님의 신권을 가진 분이 베풀고 또 언제든지 물 속에 완전히 몸을 잠기게 합니다. 온 세상의 교회 아이들은 십일조를 내는 축복을 배웁니다. 감독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이 내는 십일조 동전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며 아이들의 정성과 열의 때문에 받게 될 축복을 기뻐하십니다.

감독님은 초등학교와 주일학교에 제일 훌륭한 선생님을 보내 주십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모두 나처럼 사랑하십니다.

나는 어디서 아이들을 만나던지 이 아이들이 모두 착하고 충실한 아이들인줄 알며 예수님이 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저들의 것이니라”고 하셨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



스튜아르트와 어둠

윌리엄 제이 비트라

빌리스 루크 옮김

● 스튜아트는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몸을 숨길만한 작은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스튜아트의 어머니는, “잠잘 시간이!”라고 말씀 하시기 때문이다.

스튜아트는 잠잘 시간이 지긋 지긋 했다.

그것은 장난감 집짓기나 기차 놀이를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잠옷을 입고 이를 닦고 아빠 엄마에게 밤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가 밤을 싫어하는 것은 어둠이 무섭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방에 있는 것들이 싫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아빠나 엄마가 불을 끄고 방문을 닫고 아래 층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스튜아트는 눈을 감아 버리지만 그 주변에 무엇무엇이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돌레를 자세히 관찰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들은 어마어마한 벌레같이 보이기도 했고 엄청난 용이나 도깨비나 사나운 호랑이 처럼 보이는 것이다. 사실 스튜아트는 도깨비가 제일 무서웠다. 눈이 셋 달리고 귀도 셋이 달린, 그리고 무

서운 빨과 거미같은 다리를 가진 도깨비를 만들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스튜아트는 이 세상에서 도깨비를 제일 무서워 했다.

스튜아트는 잠이 들려면 무척 애를 써야 했다. 주변에 있는 어둠 킁킁한 그림자를 일일이 살펴본 다음 그것들이 가깝게 접근해 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다가 마침내 잠이 들고 아침이 되면 어마어마한 벌레도 끔직한 용도 사나운 호랑이도 눈썹 달린 도깨비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던 어떤날 봄 아저씨가 스튜아트를 보러 오셨다.

봄 아저씨는 아주 아주 재미있는 분이다. 봄 아저씨는 늘 스튜아트에게 주실 선물을 주머니에 넣고 오신다. 어떤 때는 캔디를, 또 어떤 때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또 어떤 때는 책을 주머니에 넣고 오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걸 가져 오셨다.

길고 둥글고 단단한 것이었다. 스튜아트는 얼른 종이를 뜯었다. “전등이다” 그는 큰 소리를 질렀다. “봄아저씨, 고맙습니다!”

스튜아트는 손 전등으로 온 집안을 비쳐 보았다. 벽에 걸린 그림과 등도 비쳐 보았고 화분과 걸상과 벽지와 꽃병도 비쳐보았다.

봄 아저씨가 갖다 주신 선물중

에 이 전등이 제일 좋았다. 스튜아트는 이 손전등이 하도 좋아서 잠자리에도 가지고 갔다. 엄마가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 가신 뒤 그는 손 전등을 켜서 주변을 모두 비쳐 보았다. 그리고는 마음이 용감해 졌다고 느꼈다.

자!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살살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벌레도 없고 용도 없고 사나운 호랑이도 없었다.

그리고 도깨비도 없었다.

다만 그가 좋아하는 귀가 한쪽 없는 장난감 곰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광대 인형과, 또 그 옆에 푸른 산토끼와 태엽을 감으면 생일 노래를 부르는 갈색 강아지가 있었다.

모두 모두 그의 친구였다.

스튜아트는 자기 자신이 펍우습다고 생각되어 한참이나 웃었다. 그는 손 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있는 그것들의 그림자를 잡살시켜 보았다. 이번에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다.

그는 벼개에 머리를 묻고 어둠을 향해 미소를 보였다.

“잘 자라!” 그는 그의 친구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는 곧 잠이 들었다. ○

지로와 야구팀

버나딘 비티

●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작은 여관을 지나 언덕에 세워진 큰 호텔 쪽으로 자동차가 질주해 가는 것을 바라보는 지로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옆으로 걸어 올라 오시는 것을 보고 서 있었다.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묵으려 하지 않는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 작은 여관이 이제는 한물갔어”

“할아버지 그렇지는 않아요.” 지로가 말을 받았다. “다만 동경에서 온 야구팀이 새 호텔에 묵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야구 선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만나 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여보 염려하지 마세요” 할머니도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어름철이 되면 단골 손님들은 찾아 오실 걸요 뭘! 우리도 할만 할게예요”.

지로는 할아버지 눈에서린 근심의 그림자를 엿보았다. 내년 여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여관 수입이 문제였다. 요리사와 일하는 사람의 급료도 문제다. 비록 여관은 작지만 손님만 들면 경기 회복은 문제가 아니다. 아니 이제까지 한번 다녀간 사람이 다시 와 주기만 한다면 해결이다.

“저 언덕에 있는 호텔에서는 우리 여관에서 준비하는 스키야끼나 튀김과 견줄만한 음식을 만들지도 못하거든요!” 지로는 심술이 나서 혼자 중얼거렸다.

“고맙다 손자야”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지로야 넌 걱정말고 어서 동료들 있는데로 가렴. 모두들 연습장에 갔잖어. 거기서 동경팀이 히트 앤드 런의 작전을

연습하고 있는 것을 모두들 보고 있지 않니?”

지로는 미소로 응답할 수 밖에 없었다. “야구 할머니, 언젠가는 보실 거예요. 나는 장차 일본 제일의 투수가 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객석에 앉아서 제가 경기하는 것을 보실 거예요. 저는 양말에 돈을 가



득 넣어 집으로 가져 올거구 우리는 돈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는 자상하게 웃으셨다. “그래. 그리고 나는 거기 모인 사람들중에서 제일 큰 소리로 응원을 할테지, 자 지금은 가서 연습이나 하렴.”

언덕 위에 있는 야구 연습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지로는 목이 메었다. 할머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다. 그는 순간 발을 멈췄다. 야구 선수 몇몇에게 할아버지의 여관에 와서 식사를 하도록 설득할 수만 있다면 다른 선수들도 따라 오겠지. 그렇지만 그 선수들을 언제나 둘러싸고 있는 열광적인 인파를 뚫고 들어가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도시오가 연습장 근처에서 지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와, 지로” 그는 까만 눈동자에 불을 켜고 지로를 불렀다. “나 오늘 일거리를 얻었어, 우리 둘이 해야 하는데 뵈 보이 노릇을 하는 거야, 어때!”

지로의 가슴은 금방 방망이 질을 했다. 선수들은 친절하게 보였고 이렇게 되면 선수들과의 접촉도 용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로가 공손하게 절을 하고 할아버지 여관의 멋진 요리 소개를 했을 때 선수들은 모두 웃어 넘겼다.

조금 마음을 상했지만 이내 지로는 연습에 열중했다. 언젠가는 메다니 투수만큼 투구할테다! 지로는 결심을 단단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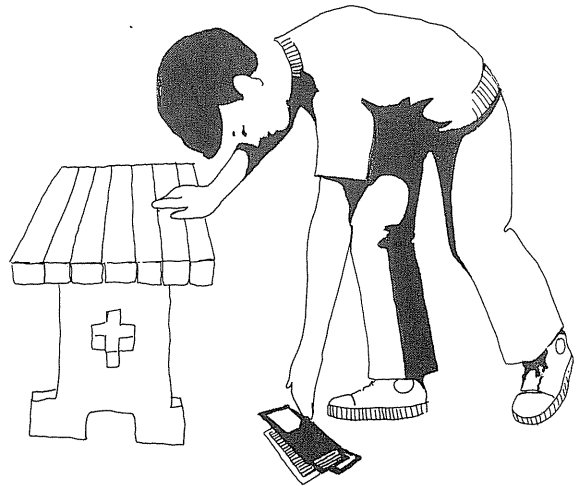
연습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 공이 지로의 머리 위로 날아 왔다. 지로는 공을 잡아 외야수인 아사 요시다 선수에게 힘껏 그리고 정확하게 던져 주었다.

“잘 던졌어 지로” 아사 선수가 말을 건넸다. “아마 장래에 우리 팀에 계약될지도 모른다.”

“감사합니다.” 지로는 기뻐했다. “나는 투수 지망생입니다.”

“그거 좋지” 아사 선수는 미소를 머금었다. “내 외투 좀 이리갔다 주겠니? 운동장 저편에 두었는데”

지로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운동장을 질주해 갔다. 그리고는 그의 외투를 집어 들었다. 순간 그는 바닥에 떨어진 가죽 돈 지갑을 발견했다. 그는 지갑을 주워 들었다. 그의 눈이 빛났다. 그 지갑에는 요리사와 일하는 사람의 급료를 주고도 남을 엄청난 돈이 들어 있었다. 돈을 매일 조금씩 할아버지에게 드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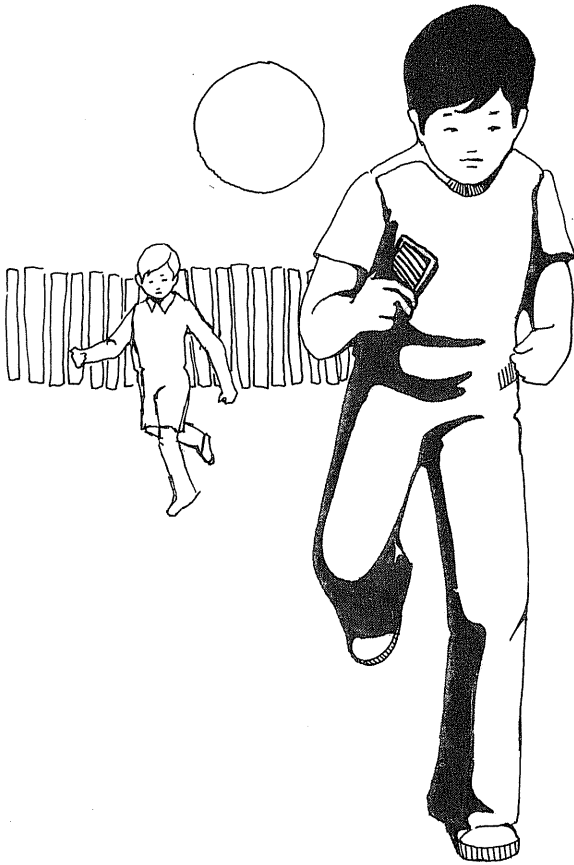


다면,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심부름으로 번 돈이라고 설명한다면 믿어주시겠지. 야구 선수가 돈이 많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지로의 내부에서 급작스런 공허함이 밀려 왔다. 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며 돈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터 돈을 훔치는 것도 아니었다.

도둑질! 그 도둑질이란 말이 지로의 목에 걸렸다.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 돈은 자기 자신에게도 불

론 그렇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도 부끄러움을 안겨 줄 것이다. 그는 돈지갑을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아사 요시다 선수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여기 외투 가져 왔어요.” 지로는 말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이걸 주웠습니다” 그는 지갑을 내밀었다.

아사 선수는 웃었다. “이건 메다니 투수거다. 그 친구 언제든지 물건을 떨어뜨리거든. 빨리 가져다 주렴. 곧 떠날거다.”

지로는 두리번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메다니씨!” 그는 소리치며 뛰쳐 나갔다. 그때 투수는 몇몇 동료와 함께 막 차에 오르고 있었다.

메다니 선수는 지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일단 걸음을 멈췄다.

“일본에서 제일 훌륭한 여관을 경영하는 할아버지를 가진 꼬마 친구다” 메다니 선수가 중얼거렸다.

지로는 돈 지갑을 메다니의 손에 들려 주었다.

“저 이걸 저 쪽에서 주웠어요.”

“고맙다 꼬마 친구” 메다니는 이렇게 하면서 지폐 몇장을 지갑에서 꺼냈다. “자 이렇게 친절하게 지갑을 가져다 준 상이다.”

지로는 잠시 머뭇거렸다. 도시요 선수가 달려와 지로 뒤에 섰다. “받아!”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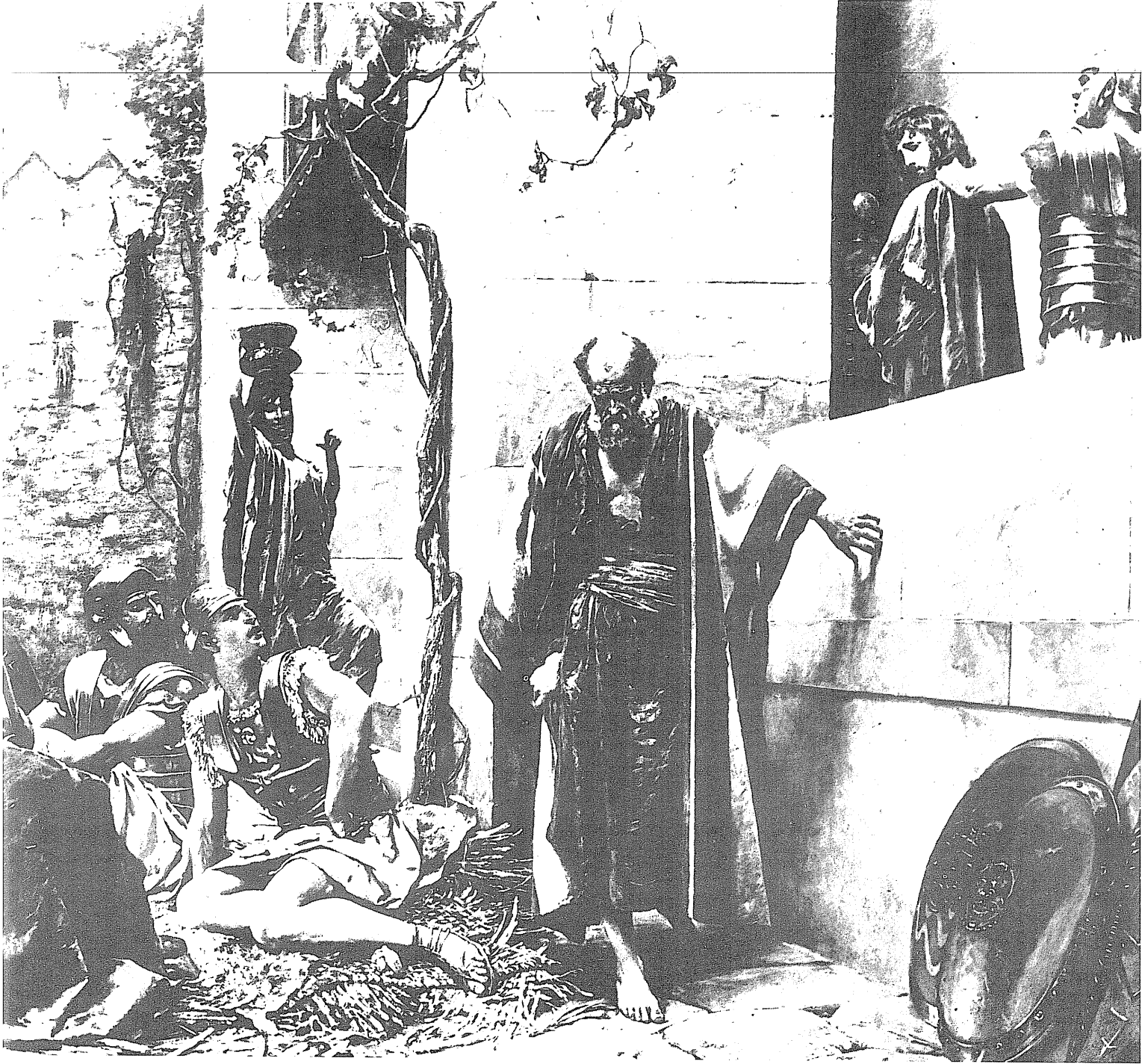
지로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대로 공손하게 절을하며 말했다.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상을 주시겠다면 할아버지의 여관에 오셔서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다니는 미소를 지으며 지로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면서 “그렇지, 오늘 저녁에 친구 몇을 데리고 그리로 간다. 그때까지 준비가 되겠지?”라고 했다.

“그럼요 메다니씨, 아 그럼요!” 지로는 기뻐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사 요시다 선수가 슬쩍 끼여 들었다. “언젠가는 이 지로가 메다니의 라이벌이 된다.” 아사는 웃음을 머금고 뒷말을 이었다. “지로가 말하지 않던가? 지로는 투수 지망생이다.”

메다니도 따라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지로는 투수감으로 보인다. 자 내일 학교가 끝나거든 친구들하고 오렴. 내 연습이 끝나고 나서 좀 가르쳐 줄테니까”. 지로는 기뻐서 하늘에 닿도록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지로는 공손하게 절을 하며 “오겠습니다. 메다니씨 꼭 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네가 돌이킨 후에

에스 딜워드 영

칠십인 정원희 제일 회장단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는 그의 위대한 희생을 목전에 두고 준비하면서 사도들도 함께 준비시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적지 않게 당황하게 했습니다. 흥분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주

와 함께 옥에도, 죽는때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22 : 32-34.)

마가는 베드로의 단호한 결의를 분명히 기록해 두었으며 나머지 사도들도

모두 “저들이 이같이 한결같이 말하였나니라”고 기록이 될 만큼 단단한 의지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근처에 있던 여자가 베드로를 고발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열 사도도 한결같이 자기들이 외친 결의를 던져 버린채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만 삼년을 주님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했으면 서로 주님께서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형편은 달라져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 낸 가장 잔혹한 처벌의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의 집행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광경은 보기만 해도 보는 이의 가슴을 산산 조각으로 찢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었습니까—지상의 최초의 부활이 될—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함께 주어질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은 떠나야 하셨던 것입니다. 하시던 일을 삼년을 한결같이 함께 하던 열 한 사도의 손에 맡기신채 저들은 온전히 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님은 이를 아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 말씀을 경청했으며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고 그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 보았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막상 성령이 임하여 불로 치실 때까지 돌이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공회당에서 영감에 가득찬 베드로가 취한 행동을 머뭇거리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쉽게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공회당에서 있

던 그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겁에 질려 지껄이던 그날의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칙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아그리빠에게 진리를 설파하던 바울은 기독교인을 찾아 박해하려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으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는 돌이킨 후에 사탄의 세력을 대항하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는 결의가 굳고 용감하며 참되고 강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박해를 자행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돌이켜 베드로와 같이 되었습니다. 돌이킴은 주님의 사업을 지상에서 보호하고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힘과 결의를 갖게 해줍니다. 이러한 돌이킴은 사람이 불의 칙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 주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모든 열쇠의 의미를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주어진 임무를 온전히 수행해 나가며 주님의 사업을 온 세상에 펼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머지 사도들을 이끌어야 했고 저들에게 이방인을 다스리는 일과 교회 지부를 조직하는 일을 지시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열 한 사도도 보혜사를 받았으니—이는 이제까지 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며—이로써 저들이 모든 것

을 가르침 받았고 이로써 모든 것이 계시되며 이 보혜사가 없이는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그 보혜사 이었던 것입니다. (교성 42:14 참조)

온 세상을 가르쳐야 하는 임무는 저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과연 이 세상을 알았을까요? 그 경계와 주변을? 저들은 로마에 관하여 알고는 있었으나 오직 들은 일 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물론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에 관하여서도 들었습니다. 저들은 다메섹이나 다이테나에 에베소나 시돈에 관하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인도나 중국, 아프리카 대륙이나 구라와의 여러 나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철로 들어서 이디오피아는 알고 있었고 저들이 알고 있던 “세계”는 협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영이 속삭여 주는 지시에 좇아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고 저들은 아테네로 에베소로 로마로 각각 흩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뒤에 다시 들려오는 영의 속삭임에 좇아 또다시 각각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어쨌든 그 시절에 알려져 있던 세계로 모두 흩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행적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는데 이는 누군가가 그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며 그가 친히 기록한 서한 열 네 통이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도들





이 어디로 갔었느냐 하는 문제는 확실치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정이 또 다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일터가 어디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모든 나라의 위치를 분명히 압니다. 일기도 미리 알 수 있고 계절의 변화도 알아내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수단도 갖추고 있습니다.

열 한 사도는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주님이 하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와 함께 서 계신 것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받모 섬에 계시던 요한을 방문했던 천사에 관하여 이야기했으나 오늘날 우리들은 모로나이 천사라던가 칩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엘리야, 일라이자 등의 하늘 사자가 요셉 스미스에게 열쇠를 전하고자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으로 수 많은 옛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그들의 흥미를 끄는가 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전한 가르침을 응용하게 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며 돌이켜서 영과 권세와 하늘에 관한 지식을 앞세워 나가는 일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너희는 돌이켜서 너희 형제들

군게 하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 이제 바야흐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및 베드로와 함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위에 성신이 임하였으며 거룩한 이 은사가 우리들에게 허가되었습니다. 1830년 이래 우리는 성령의 권세를 갖고 살아 왔으며 이로부터 우리들의 지도자와 성실한 회원들은 힘과 안내를 허가 받습니다. 성실한 선교사와 교회 회원에 의하여 이미 온 세계의 삼분의 이에 해당하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1830년으로부터 1846까지는 각 회원의 온 가족이 선교 사업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저들은 이웃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모두 활동에 참여했으며 아버지는 틈이 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전도하였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실 일을 도움으로써 전도 사업에 아바지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유타의 골짜기로 이주해 온 1846년 이래 가족의 선교에 대한 열의는 차츰 식어졌습니다. 얼마 동안은 부모들이 나갔고 그후 점점 자녀들이 더욱 열심이었으며 마침내 이십세기에 들어 서서는 여행의 짐이 자녀들에게로 넘어간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각 가족들은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며, 자기들 스스로는 나가서 전도하거나 전파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협의 체제가 확립되어 우리는 또다시 옛 방법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가족 전체가 관여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일치

단결하여 귀를 기울이겠다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성도들의 노력이 힘을 입어 베드로가 이루고자 했던 것과 같은 위업의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구도자를 진심으로 물색한다면 우리들 스스로도 영의 삶이 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다른 형제들을 행복하고 굳게 하며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행복한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음이 앞으로 굴러나와 온 땅에 차고 넘칠 때까지 전진한다는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성 65 : 2 참조)

교회의 칠십인이 특별히 이 사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모든 것이 상세하고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서 질서 정연합니다. 각 와드에서는 칠십인이 선교 활동의 대표로서 지부장 (감독)의 지시를 받들어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 교사는 모든 말일성도로 하여금 비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뜻은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모두 돌이킨 후에 나가서 이행합시다. 여러분에게는 영이 주어질 것이니 담대히 나가서 행동하도록 합시다.

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재판장당과 사도 정원회 여러분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의 행동을 통하여 저들의 돌이킴의 열매를 봅니다. 여러분께 간증하거니와 마치 베드로가 영에 사로 잡혔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역원들은 주님이 친히 택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성신의 지시와 가르침을 따르도록 합시다.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들 개개인이 먼저 돌이킨 다음에 우리들의 형제를 굳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도 역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일의 사업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복음은 회복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언했습니다. 아멘. ○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영국 만체스타에서 있었던 지역 연차대회에서 전해진 말씀을 간추린 것이다.

● 나는 가끔 어리석은 젊은 소년 소녀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듣습니다. “뭐가 어쨌다고들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우리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인데?” 그런가 하면 도덕의 표준이 낮은 사진이나 그림을 놓고 그것의 예술성 여부를 따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선과 악을 구별하여 판단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라, 또한 이를 판단하는 일은 낮과 밤을 구별하여 온전하게 아는 것같이 지극히 간단한 일이니라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리라. 무엇이라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모로나이 7: 15-16.)

위에 언급한 내용의 말씀은 일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종교생활에 있어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가르침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을 이탈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악마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참된 것일 진대 여러분을 구세주의 앞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만사가 이처럼 명백한 것입니다.

헤롤드 비이 리
대관장단 제일보좌

십일조와 헌금은 하나님 왕국의 재정의 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으로 이 교회의 성도들의 성실의 도가 집적될 것입니다. 이 법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누가 적인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으로 우리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빅토 엘 부라운
관리 감독단 제이보좌

바라건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악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위 “성인 오락”이라고 세상에서 내세우는 것에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성인에게는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적합하면서 어린 아이에게는 비도덕적이고 더러우며 정도가 낮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속한 책을 산다던가 유치한 잡지를 읽는다던가 깨끗하지 못한 영화를 관람한다던가 혹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라도 옳바르지 못한 사람들이나 사악함을 사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살찌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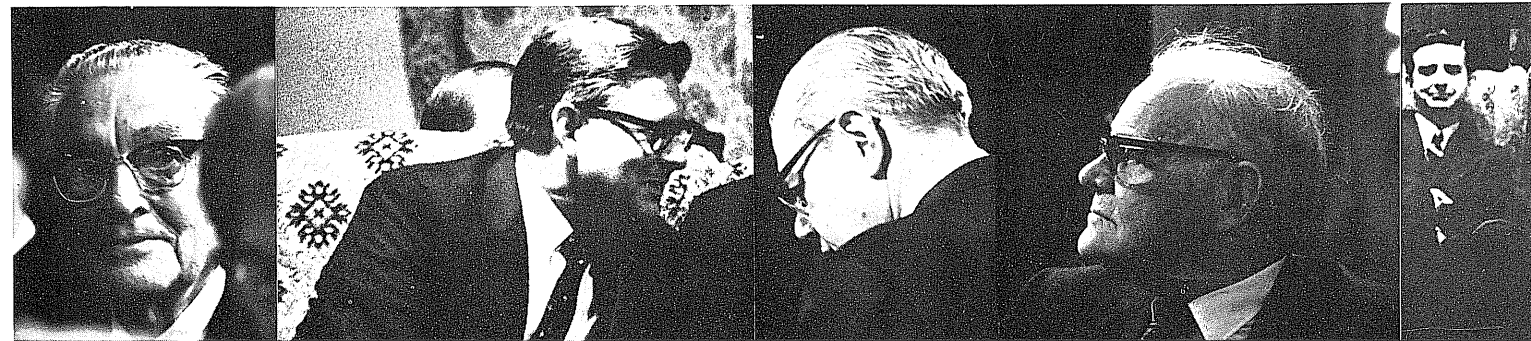
리차드 엘 이반스
십이사도 정원회

물론경에 보면 아주 짧은 글로된 설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섯 구절 정도고 다른 하나는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소개해 보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사악함은 행복치 못하니” 나는 이보다 더 짧은 설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리차드 엘 에반스
십이사도 정원회

나는 과연 여러분이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얼마를 지불하실지 잘 알지 못하나 얼마 전에 보스턴에서 재미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날씨는 꺾이나 추웠습니다. 이월도 다 저물어가던 지음 강이나 호수의 어름이 차차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뉴스가 될 일도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잠중 개 한 마리가 보스턴 항구로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개가 백여 마일 쯤 항구를 벗어나 걸어 나왔을 때 어름이 갈라지기 시작하였고 개는 커다란 얼음 조각에 실려 흘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처 개가 어떻게 할 사이도 없이 얼음조각은 흘러내려 갔습니다. 그때 유서 깊은 다리 난간에서 이를 내려다 보던 행인이 소방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철 사다리와 기타 장비를 갖추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보고를 철회할 사이도 없이 경찰과 시에서도 사람을 보냈고 자원 구출대도 그럭저럭 몰려 왔습니다. 결국 작은 개 한 마리를 구하고자 전 시가 동원된 것입니다.

만체스타 대회



다. 그날의 비용을 어떤 기자가 조사하여 집계했는데 작은 개 한 마리를 구출하는데 18,000불이 소요되었다는 거였읍니다.

나는 이 문제를 사람의 관계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들일 수 있습니까? 물론 한계를 정할 수 없읍니다.

포울 에이치 던
칠십인 제일 회장단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가족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지도자가 강조하는 바 "모든 회원은 다 선교사"이다 라고 한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로렌 시이 던
칠십인 제일 회장단

내가 평생을 믿어 왔으나 주님의 영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소망하는 요구를 성취하는 길로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매리온 디이 행크스
십이사도 보조

나는 교리와 성약에서 여러분께 드릴 몇 구절을 뽑았읍니다.

"무릇 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는 나의 제자니라. 그러나 말로는 율법을 받아 들였노라 하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 너희 가운데서 쫓아 내지니라."(교성 41:5.)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쓰시겠다는 약속은 세상 만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만민을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이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로다".(마태 11:28.)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에는 그 댓가가 없읍니다. 값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댓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얻으려면 행

함의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장래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오늘은 따르는 자이나 내일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기회를 선용하는 자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름은 모두 하나같이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될 때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수가 있습니다. "내게 왜 이 부름이 왔을까? 나보다도 더 유능한 사람이 교회에는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서 우리들의 장단점과 능력을 우리들 자신 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됴됨이 때문에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헨리 디이 테일러
십이사도 보조

우리들의 예지, 신체적인 능력, 시간, 돈 기타 우리가 축복으로 받은 여러 가지 재능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시어 사용하게 하셨으며 결코 감추어 두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두라고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십이사도 정원회

이곳과 같은 지방, 그리고 내가 아는 이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는 여러분의 외관이 특이하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군중과 함께 군중의 대접을 받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이 체체 한다면 눈을 치켜 뜨고 거드름을 부린다면 입을 삐죽 빼문다면 남의 평을 "그럴듯하게"하는 사람이 아닌자에 의하여 이행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만체스 타나 런던이나 뉴욕이나 부에노스 아이페스 같은 곳을 거닐게 되면 적지 않게 실망하게 됩니다.

매리온 디이 행크스
십이사도 보조



여기에 소개되는 대답은 교회의 교리를 공포하자는 뜻이 아니며 안내와 지침의 목적으로 쓰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응답

“부모님들과 견해의 차이를 갖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입장을 부모님께 이해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특별한 사물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런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심각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해결하느냐? 하는 점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미처 발견치 못함으로의 험난하고 미끄럽고 위험한 부분을 미리 발견하셨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를 갖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전해주신 현명한 권고의 말씀을 나이가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후에는 감사함으로 느끼는 그 권고를 좀 어렸을 때에는 자기들에 대한 간섭이요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으니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끔 부모와 자녀가 의견을 달리할 때, 그리하여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가 과연 주님의 안목에서 판단하면 옳은 것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68편 28절을 빌어 주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권고의 말씀을 익혀 둔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곧 부모에게 주시는 계명이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그 죄가 부모의 머리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견해 차이가 복음의 뜻에서 이탈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들은 이를 가차없이 지적해 내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지상의 부모에게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모에게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간의 견해 차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몇 가지 제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주님께 배우겠다는 소망과 성신의 도움으로 훌륭한 해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
2. 가정의 밤 순서를 가정에서 열심으로 이행하고 온 가족이 건설적인 자기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한다.

3.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특별히 토론회를 갖도록 하되 온 가족이 즐겁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때를 선택하도록 한다.
4. 여러분의 견해 차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다. 반면에 여러분의 가족간의 사랑과 유대는 평생토록 이어지는 항구적인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5. 상호간의 토론은 되도록이면 시초에 끝내도록 하고 그것이 극도로 흥분하거나 화를 낼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한다.
6. 부모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도록 한다. 그런 연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린다. 간간 부모나 자녀가 너무 자기들의 입장만 고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참으로 침묵은 금이다.
7. 부모님으로 하여금 바로 자기 자녀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가를 알도록 한다. 부모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리시지 않도록 해드린다.
8. 결국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는 때라도 인내로 견디도록 한다. “언젠가는 모두 과거 지사가 된다”는 교훈을 기억하자. 도무지 부모

기회와 상호간의 사랑이 의견의 불일치로 지연되거나 보류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의견의 불일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 99를 서로 나누면서 나머지 하나로 불화를 갖게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결을 하지 못한채로 작은 불화로 인하여 사랑하는 영원한 친구나 가족간의 유대를 파괴할 수 밖에 없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더구나 정직하고 영원한 참된 친구와의 관계라면 말입니다.
 어베스트 엘 에버하드 이세
 관리 감독단 아론 신권과 대표

“작은 와드나 지부에 참석하는 자매로서 소속 와드나 지부에 형제수가 적을 때 비회원과 데이트를 해야 할 것인가?”

데이트란 한 사람의 개인을 받아 들인다는 것이며 이로써 참된 친구가 되고 상호간의 신뢰를 산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딸을 가진 어머니로



에버하드 형제



롬니 자매

의 의견에 승복할 수 없다고 느껴지거든 스스로의 결정을 심각하게 재검토하도록 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견의 장점을 날날이 발표하고 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꼭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에서 배웠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는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나의 대답은 상호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를 발견해 낸다든지 느끼는 일 자체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견해 차이가 부모님이나 복음의 뜻에 일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의견이 사랑하는 사람의 뜻과도 다르고 많은 경험을 쌓은 분들의 것 과도 다르며 여러 가지 질서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즐길 수 있는 귀한

서 말일성도 형제가 많지 않았던 곳에 살았던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질문을 한 자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자매의 개인의 표준과 몸가짐 그리고 장기 목표 등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님의 신전에서 갖는 신전 결혼이야말로 말일성도 자매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영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데이트는 결국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느냐를 해결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거나를 막론하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매가 지니는 표준과 몸가짐은 데이트에서 상대방에게 몸가짐과 정신 자세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과 표준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고 안될 것이 있는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시비가 반드시 도덕적인 것을 두고 거론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리의 길이라든가 양복 바지의 넓이라던가 셔츠의 스타일이라던가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나 옳지 않으나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착용하는 자의 태도라던가 자세를 점칠 수 있는 척도는 될 것 같습니다.

태고로부터 젊은이들은 자기들 특유의 스타일을 원했으며 그것이 때로는 기성 세대의 것과 일치하기도 했고 때로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 때는 두더지 가죽 바지가 유행했는가 하면 볼록 스타일로 머리를 깎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가랭이 좁은 바지를 입기도 했고 여자용 긴 치마를 입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동차나 가옥이나 기타 수천 가지의 물건의 스타일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머리를 길고 더부룩하게 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러는 어른들도 머리를 길게



기르고 더부룩하게 기르기도 합니다.

최근에 장발족이라는 신어를 낳을 만큼 긴 머리는 거의 혁명적이었으며 특히 스타일은 신문이나 기타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려진 바 마약 중독자나 문제아들에 의하여 유행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풍조를 받아 들였고 이를 자기가 따름으로서 남과 다르다는 것을 역설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장발족은 모두 장발족인 것이지 그 중에 진전한 부류도 있고 퇴폐적인 부류도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더러는 장발을 하면서 나머지 장발족과 동류 의식을 느끼고, 저들의 행실까지를 따르기도 합니다.

형태가 같은 부류끼리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음은 누구나 쉽게 수긍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장발을 할 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저들의 퇴폐적인 사고 까지를 흉내 내지나 않을까 하여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말일성도는 젊은이나 어른이나 할것 없이 모두 “무엇이든지 훌륭하고 칭찬할만한 것을 추구”합니다. 긴 머리는 여러분의 부모님께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젊은이의 숨결을 전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모호하기는 하지만 무엇인가의 의미를 전해 줍니다. 물론 정상에서 벗어난 행위를 계속하는 젊은이들이 곧 완숙의 과정으로 발전하고 무엇인가 자기 가치를 발견하려는 몸부림으로 그렇게들 한다고 어른들이 이해를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였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하고도 참된 가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마땅히 이 복음의 가치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로써 세상의 빛이 되어 등경 위에 세워지고 맞을 잃는 자들에게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모두 복음의 의미와 우리의 사명에 관하여 깊이 생각한다면 머리의 스타일에 관한 염려나 근심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복음을 갖고 생활하는 때



리 안에서 이에 대한 이견으로 대립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개성과 인격을 반영하는 어떤 형의 머리 스타일을 택할 것인가를 쉽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이 레버 루우드
유타 주립 사회부
마약과 과장

“계보는 왜 중요한가?”

계보는 계보 그 자체에 있어서 말일 성도가 가장 훌륭하고 중대한 사업을 이루는데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며 영원한 가족의 유대가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을 두고 가족의 유대가 연결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가족의 결속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가족의 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보 사업이다. 이것을 가지고 신전으로 가서 개인개인을 영원한 가족으로 결속시키며 하나님께서 이르신 온갖 필요한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다.

계보 사업과 신전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의 생활과 유대를 영원화 하자는 것이며 온 가족이 모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광을 입은 부활의 몸으로 만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보 연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자격 있는 자와 원하는 자를 인도하는 큰 사업을 달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계보를 소중하게 다루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에드로 엠 버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좌

“나는 종교적인 인물이 못된다. 그러나 도덕 표준에 어긋나는 영화나



소설을 즐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인간이 완전히 100퍼센트로 종교적이라고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참 종교는 늘 우리가 최선을 다 할 것을 요구하며 온전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늘 쉬운 일일 수는 없다. 종교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보통 인간인 우리들은 쉽게 용기를 잃게 된다. 어떤 이에게는 종교 생활이 요구하는 시간의 할애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문제가 되며 또 어떤 이에게는 금단의 열매의 교훈이 너무 비인간적이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기가 비종교적이라고 느끼면서 이러한 일체의 문제를 남의 도움없이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신 그

리스도께서 이러한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다. 이 도움으로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최선의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면하며,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나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사고의 중요성과 힘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권유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행동을 지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평화를 원하면 선한 동기를 갖고 선한 생각을 가지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온당치 못한 생각은 온당치 못한 행위를 유발시키며 우리들의 행복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하는 오락의 성격을 놓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접하는 오락이나 예술의 이름으로 소개되는 여러 가지 것의 도덕적인 표준과 가치를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저질의 영화나 소설에 설명되는 도덕관은 복음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이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위치에서 사람들은 갈등과 혼란에 휘말리게 되며 선한 생활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파괴하는 행동에 유혹되는 것이다. 결국은 저 유명한 ‘어거스틴’의 처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여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그러나 주님께서 곧 나의 다른 탄원을 들으시겠기에 지금 원하지는 않습니다. 주가 곧 들으신다면 내가 멀리하려 했다가 보다는 만족하려 했던 사슴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어거스틴의 참회, 제8권) 내면의 평화는 사라지게 되고 사람은 이를 마음에 심으려 한다. 인간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러면 이와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즐거워 보이는 하나를 던져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결을 적어도 나는 또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말하자면 사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매치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라 하겠다. 적어도 나는 소위 성인 영화 혹은 성인 소설이라고 하는 비도덕적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보다 격조 높은 영화와 소설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보다 훌륭한 것을 구하고 추구해야 하며 이로써 우리들의 생각과 삶을 성장시키며 또 우리들이 즐기는 오락의 기회와 시간이 정리와 발전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세기 전 마카스 안토니우스는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인간의 행복은 저들의 사고의 정도에 따른다”. 구세주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해 주셨다. “끊임없이 덕스러움으로 그대들의 사고를 정비하라”(교성 121:45 참조)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히 종교적일 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더 아아르 베세트
유타대학 종교학원 교사

● 구약에 소개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흥미있는 이야기는 느브갓네살의 꿈을 해몽한 다니엘의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그 꿈에서 왕은 광채가 형용할 수 없이 밝고 모습이 끔찍한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굴러 내려온 돌이 그 거구를 산산 조각으로 부수고 말았습니다. 이 꿈이 너무도 무섭고 괴기하여 왕은 그 꿈의 해몽을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이 꿈을 해몽하면서 선지자 다니엘은 후에 주님께서 결코 없어지거나 멸망되지 않을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이 왕국이 차차 모든 열국을 다 딛고 일어서서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전에 기록된 바는 이렇습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 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 2: 45.)

종교 작가라면 거의 모두가 이곳에 임할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 작가들은 더욱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언제 이 왕국이 세워질 것이냐고 하는 질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왕국일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수세기를 역사해 온 기독교 정신이 세상의 왕국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부양하고 협조해 왔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장차 있을 배도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도 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일에 관하여 예언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태 24: 24)

주는 주의 사도들의 죽음을 예언하셨으며 우리는 모두 그러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순교가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 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 하리니.”(데살로니가후서 2: 2-3.)

전체적인 배도가 있으리라는 경

전의 예언은 너무도 분명하게 성취되었으며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를 고찰할 때 그 전모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쨌든 느브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다니엘의 증언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며 다만 그 시기만이 미지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

하나님의 왕국

디아블 엠 버튼

십이사도 보조



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이사야 2:2-3.)

이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 졌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교성 65:2.)

이 교회의 초기의 선교사들이 캐나다로 선교 활동을 떠났을 때에도 저들은 바로 이 회복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에서 말씀하신 사실을 전하며 큰 기쁨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부르짖어 전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돌은 인간의 손으로 잘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내어 보이심으로써 복음의 돌을 앞으로 굴리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가르키시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에게서 들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요셉 스미스서 2:17.)

요셉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진리와 소망을 회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뜻하는 동의어입니다. 회복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상의 다른 왕국이 소멸되고 있을 때에 회복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극소수의 왕국만이 잔류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러한 왕국은 형태만의 왕국에 불과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의 왕국만이 남게되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그 왕국이 독존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진리와 소망의 메시지를 캐나다 지방에서 전하고 있을 때 증조부이신 사무엘 버튼이세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귀에 거스리지 않았던 까닭에 증조부께서는 온 가족과 더불어 이를 복음의 진리로 받아 들였습니다. 일단 교회의 회원이 되신 증조부와 그 가족은 나부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합류하고자 고향을 떠났습니다. 채그분이 나부에 도착하시기 전에 요셉과 하이람이 순교를 당하셨으므로 증조부 가족은 중도에 길을 바꾸어 윈터스 쿼터를 지나는 성도들과 합류하고자 서쪽으로 길을 돌렸습니다. 증조부의 아내이신 한나쉽플리 버튼 할머니는 여독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미시시피 강쪽과 연결된 벌판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상심하신 증조부께서는 주를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주께 불평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다 온전하게 주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이해한다면 고난중에 인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며 고난을 당하거나 희생과 봉사를 요청 받았을 때 쉽게 내뱉게 되는 불평을 많이 억누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어느 누구 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당하기 전 그는 성도들이 록키 산중으로 쫓겨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강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성도의 일부와 소수의 지도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캐나다 서해안에 인접한 밴쿠버 섬에 가 본 일이 있는데 지상의 낙원이라고 느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왜 사람들이 그 섬과 그곳의 기후를 칭찬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교회 초기 성도들이 정착지를 물색할 때에 밴쿠버 섬에 정착하게 해 달라고 성도들이 영국 정부에 탄원서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당국의 강경한 거부행사에 거의 모든 성도가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후 어떤 성도들은 브리검 영 대판장이 살기 좋고 아름답다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가자는 군중의 제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들은 록키 산중의 황야에서 정착하지 않으면 안되었겠습니까? 이는 오직 이곳에서만 이사야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 곧 하나님의 왕국이 산중의 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봉우리 보다 높은 곳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이 지혜와 힘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돌은 그곳에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수천 선교사들이 이 집합의 장소에서 하늘에서 다시 전달된 기록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흠뻑 땀을 흘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예언이 이제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에 수록되어 있으며 성경은 그 처음을 예루살렘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 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다른 증거가 되는 물본경도 그 근원을 예루살렘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리와 성약에 명시된 주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하여 살아 있는 예언자를 통하여 주어졌으며 시온에서 비롯되었고 바로 이 시온은 미대륙 위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언을 놓고 살펴 보아야 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는데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점입니다. 야곱의 후예라 함은 이스라엘의 자녀를 뜻하는 것이지만 도매체 야곱의 하나님의 집이란 무슨 뜻입니까? 어찌해서 야곱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산에 세워진 신전을 뜻하고 영원한 언덕 위에 세워진 주의 전을 뜻한단 말입니까? 그곳에 세상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해야 하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신전에서 주어지는 권능과 권세

를 받았으며 산 위에서 이미 출발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 땅에 전하고자 쫓겨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차 세력이 정비 되면서 신전이 도처에 세워지게 되고 마침내는 온 세상 방방 곡곡에 신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신전에서는 보다 자세한 하나님의 지식과 가르침이 전달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방법으로서는 얻지 못할 필요한 영의 양식을 얻게 되며 이로써 보다 훌륭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 하므로써 우리는 신전에 자주 들어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만일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이 신전에 정기적으로 들어가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다면 이는 저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늘 기억하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성약을 나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전에서 우리가 맺는 성약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가 이를 어기면 영원한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권을 소유한 교회의 회원은 개별적으로 신권 정권 회별로 혹은 아내와 함께 신전 의식에 참여하여 영적인 힘을 강화하고 영혼을 새롭게 먹여야 할 것입니다. 신전에 정기적으로 참여 하므로써만 우리들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겠다고 한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성 4:2참조)

나는 말일성도가 이 두 가지 예언을 분명하게 기억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 예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 줍니다. 신전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곳에 가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신전에서 주님과 나눈 성약을 여러분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지키고 생활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해의 영광의 세계에 있을 곳을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요구한 바를 수행하므로써 스스로 준비해야 하느니라”(교성 78:7.) 만일 우리가 해의 영광의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해의 영광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생각하느라던 이제까지 본인이 말씀드린 두 가지 예언의 내용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지금 완전한 단계에 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바로 뜨고 자세히 관찰하기만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면전에서 주님의 계획이 계시되는 것을 목격하실 것이며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의혹과 의심으로 더 이상 세월을 허용치 말고 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 원리를 탐구할 진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개개인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대열에 함께 와서 참여 하시라. 이 말일에 주가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하신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시라. 여러분도 시온의 산에서 온 땅을 채우고자 쫓겨 내려오는 돌처럼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구하는 시온산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목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지도에 따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했습니다. 아멘. ○

모두가 나누어야 할 아담의 축복

●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주님은 저들에게 복음의 원리와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으니—곧 이 계획은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주는 또 저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담의 자녀들은 대체로 아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 하였고 오직 아벨만이 가르침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벨은 살해되었고 그 후 셋이 태어났는데 저가 아담의 가르침을 받아 들였습니다.

엘드레드 지 스미스
교회 축복사

주님은 아담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존속할 의로운 자녀를 갖게 되리라고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으며 모세서에는 이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아담에게 성신이 임하셨더라.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이시라 이르시되, 나는 예나 이제나 태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의 독생자라. 내가 타락하였음에 구속을 얻을 것이요 구속을 얻으려는 인류도 모두 다 그러하다.

그다음 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초로부터 있었던 바로 이 신권은 세상의 마지막에도 있으리라

“아담이 성신으로 감동되었을 때 이 예언의 말을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를 기록하였으니 이는 아담의 계보라. 일렸으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나니, ……”(모세 6: 7~8)

이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아담의 직계 후손의 계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그 때에 말씀하신 기록의 일 부분을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으니 바로 성경이요 이에 관하여 근대 계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차는 아담 시대에 제정되어 이 같이 그 자손에게 전해 내려 갔느니라.

“곧 아담으로부터 셋에게 전해졌나니 셋은 육십 구세에 아담으로부터 신권을 받았고 저가(아담) 죽기 삼년 전에 축복을 받았으며 또 그의 후손은 주의 선택된 백성이 되며 이 세상 끝까지 보호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으로부터 받았더라.”(교성 107: 41~42.)

이 약속은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주어 졌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창세기 12: 3.)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18)

우리는 이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값진 진주 아브라함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헤아릴 수 없이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이 만국 백성 가운데서 크게 되게 하리라. 너는 네 자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은 만국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는 직분과 신권을 지니리라.

“나는 네 이름을 통하여 저들을 축복하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아 일어서서 너를 저들의 조상으로 축복하리라.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이는 ‘곧 네 신권으로’ 하는 일이라)와 후손(곧 신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내가 네게 한가지 약속을 줄 것임이니 그 약속은 곧 이 권능은 너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네 후손(문자 그대로의 후손이니 몸에서 나온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서 2:9-11)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거듭 확인되었고 후에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전달되었으며 다시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로 분리되어 이스라엘의 지파로 알려진 그 열두 족속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연결되는 계보의 앞뒤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인 받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된 기억의 책에 기록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온 세상 만민이 모두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주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축복을 받으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축복을 받는 자들이 모두 일어나 아브라함을 그들의 아버지로 축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2:10참조)

교회 회원 중에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있다면 저들도 위에 언급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아닌 자로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면 영원한 생명인 신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직계 혹은 입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된 자를 통하여 이러한 축복을 허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각각 저들의 성실함에 따라 영생과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한 신권지도자의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디를 우리는 경륜의 시대라고 하며 아담으로부터 셋에 까지, 셋에서 에녹까지, 에녹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모세에서 엘리야까지, 엘리야에서 침례 요한까지, 침례 요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각 경륜의 시대마다 각각 신권의 중요성을 재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신권의 체제를 강화하고 인간이 세상적인 유혹을 극복하므로써 복음의 축복을 얻게 되는 기회를 고루 마련코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마지막 경륜의 시대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서 사도 바울은 이에 관하여

에베소 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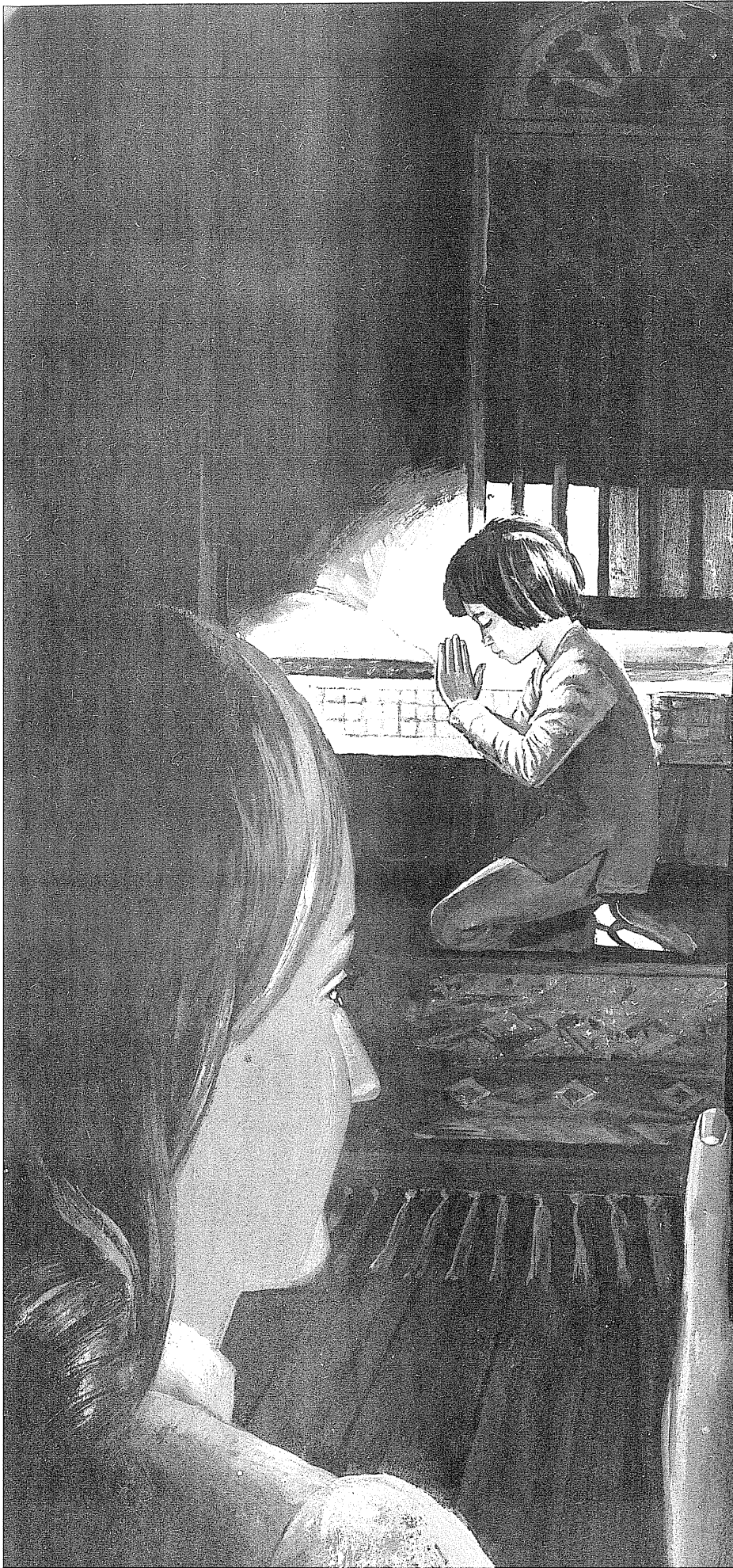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태초 이래의 모든 경륜의 시대의 총 결산입니다”. (프랭클린 디·리처드 콤포턴디움 1898. 143페이지) 이는 바로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복천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절기임을 시사합니다.

나는 바로 오늘이 마지막 절기임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곳에 있으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온갖 선전의 열쇠도 또한 이곳에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옛날 선지자들처럼 계시로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의 열쇠를 회복해 주셨고 그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벨기세벱 신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커틀랜드 신전을 방문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인봉의 축복과 열쇠를 회복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모든 열쇠를 죽기 전에 사도 정원회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날까지 이 신권의 권능과 열쇠는 보존되어 전달된 것이며 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어 다스리실 복천년에 이르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민이 다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며 복음을 받아 들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만민에게 다 드리는 것이며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양의 기억의 책에 기록된 바 영생과 축복을 받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패체니

미키 구드윈

● 로스, 베드 안, 리치, 크리스 그리고 수, 나는 연필로 내 주변의 세계에 있는 이름들을 무심히 백지 위에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세계를 그려 논 다음에는 버릇대로 어쩔 수 없이 다른 그러니까 내 생애의 그림을 끄적이고 있었다. 처음에 그저 까만 두 눈을 넓은 미간 양편으로 그려 놓고 꼭 누구를 그리겠다는 뜻도 없이 게으르게 눈섭을 그리고 눈 자위를 그리되 눈 꼬리가 약간 위로 치올라가도록 했다. 나의 연필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멋대로 움직이면서 넓고 얇은 코를 그린 다음 코 밑에 꼭 다문 입술을 그려 넣었다. 연필을 뉘어 뺏에 드리운 그림자를 그려 넣으면서 비로소 나는 내가 게으르게 아무 것도 아닌 얼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다정한 얼굴, 나의 패체니를 앞에 그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패체니

패체니는 단순하고 천진스러운 사람이었다. 사랑스럽던 패체니.

나는 참 번잡스러운 미국 여자다. 그리고 그 방콕에서의 첫 아침에 나는 짐을 풀어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더위와 거리의 소음에 짜증을 내며, 또 오래도록 호텔에 머물러야 했던 지루함과 또 아이들, 쉽게 주택을 구하지 못하던 방황,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던 조바심, 문에 노크 소리가 났을 때는 나는 거의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태국에서의 생활이 결코 나의 생활의 질서를 파괴하게 할 수는 없었다.

“네?” 나는 문으로 향해 대답하면서 이내 문을 밀고 들어서는 검붉게 탄 젊은 소녀의 얼굴로 눈을 주었다. 곧 그녀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한 다음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다. 그녀는 겨우 내게 들리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했다.

“사 화 데”

“뭐라구요?” 나는 그녀가 영어를 알아들어 주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영어로 물었다.

“저는 가정부입니다” 그녀는 허리를 약간 폈을뿐 얼굴은 그대로 땅을 향한 채로 대답을 했다.

나는 그녀를 안쪽으로 인도했다. 사실 그런 몸집의 어린 여자가 내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이야기든지 그녀에게 전해야 했다. 곧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일 잘하는 가정부입니다. 일을 아주 잘 하지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었다. 그대신 “이름은 뭐지요?” 라고 했다.

“패체니 예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비로서 그녀는 얼굴을 들어 나를 쳐다 보았다.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서 천진스러움을 느꼈고 그녀가 조금도 당황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 만만한 태도를 가진 데 놀랐다.

“나이는?”

“스물 셋 입니다.” 그녀가 대답을 했다. “여기서 함께 살겠습니다. 일주에 칠 바트를 받겠습니다.”

그것으로 계약은 끝났다. 나는 그 단순한 태도에 끌려 일을 끝낸 것이다.

나는 그녀의 방으로 알맞을 것 같다고 집주인이 설명해준 작은 방으로 그녀를 인도했다. 딱딱한 침대가 하나, 커튼도 없는 작은 창문 하나 그리고 작은 다락이 붙은 그 작은 방을 패체니는 선듯 받아 들었다. 그녀는 자기의 가방과 짐을 침대 위에 놓더니 앞치마를 하나 꺼내 두르고는 일할 준비가 되었다고 내게 보고를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녀는 끝까지 우리와 살았고 나는 그녀 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야 할 이유를 갖지 못했었다.

남편이 태국에서 임무를 맡은 첫 달은 그럭 저럭 지났다. 나는 아이들과 씨름을 하며 대부분이 군인인 작은 지부에 매여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고 미 국인 학교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어야 했다. 나는 패체니에 대해서 그녀가 코라트 근처에 살았다는 것과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다는 것 그녀의 종교가 불교

라는 것 이외에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나는 그녀를 도와 그녀의 방을 정돈하고 꾸며 주었다. 머리 손질도 도와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녀의 종교에 관해서는 무심했다. 전혀 상관치 않은 것이다.

참 이상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그녀가 자기 자신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라고 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줄 때 으레 히 종교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도 나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빠짐없이 가정의 밤이나 가족기도 순서에 참석했지만 순서를 맡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상냥한 미소로 사양하면서 “아니오, 저는 그냥 듣겠어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저녁은 젊은 공군 병사인 제리 커크햄이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일이 있었다. 제리 커크햄이 선교사를 했다는 사실을 안 아이들은 그 아저씨를 “커크햄 장로”라고 장난기 섞어 불렀던 것이다.

패체니는 이러한 호칭에 다분히 흥미와 호기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제리에게 머뭇거리면서 “왜 사람들이 장로라고 부르죠? 나이도 많지 않은데요”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웃었다. 그리고 제리는 패체니에게 장로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축복하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다. 진지하게 설명을 다 듣고난 패체니는 남편에게 “선생님도 장로이신

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설명해 줄 용의가 있다는 태도였으나 그녀는 그냥 웃고만 있다가 방을 나갔다. 그 간단한 대화중에 그 후 우리들 모두에게 미칠 어떤 특별한 영향에 관한 징조가 될만한 것은 없었다.

위에 아이들인 리치와 크리스에 대한 패체니의 태도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었으며 아이들에게 태극 놀이와 노래등을 가르쳤고 특히 어린 수에 대한 사랑은 그야말로 끔찍했던 것이다. 수를 대할 때도 그녀는 허리를 굽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늘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거들어 주었다. 단추를 채워 준다던지 신발끈을 매 줄 때도 그랬다. 수도 패체니를 사랑했다. 그 아이는 마치 강아지처럼 패체니를 따라 온 집안과 정원을 뒤쫓아 다녔다. 혹 패체니가 가족을 만나러 자기 집으로 가는 날이면 두 살 짜리 수는 마치 영원을 기다리듯 지루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우리가 태국에 산지 일년이 되었을 때 수가 병이 난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열도 이삼일 지나면 내리겠지 했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났는데도 약을 계속해서 먹었는데 체온이 도무지 내리지를 않아 드디어 나는 크게 걱정을 하기에 이르렀었다. 남편도 틈이 나는대로 전화를 걸었다. 패체니는 수백번 주의 방을 드나드는 것 같았다. 몇새 째 되는 날 다시 의사가 와서 검진을 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열이 내리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 시키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패체니는 우리들에게 정상적으로 저녁을 차려 주었으면서도 자기는 음식을 들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 마저 병이 나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일찍 상을 물리고 그녀의 방으로 갔다. 그런데 내가 주의 방을 지나는데 낮은 패체니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것은 평상시에 수와 이야기를 하는 식의 소리가 아니고 조금은 절박한 그런 음성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커튼 사이로 방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리고 주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패체니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나는 평생 불교를 신봉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구하려고 말씀하셨기에 구하고 있습니다. 수를 낮게해 주세요. 수는 작아요. 병이 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서 이 아이를 낮게 해 주세요. 나는 더 이상 불교의 신봉자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다 나를 보았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 졌다고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았다.

“왜 커크햄 장로를 안 부르지요? 책에는 부르도록 되어 있던데……” 내가 그녀의 참을성 없는 짜증이 섞인 말을 들어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나는 아직 손 끝을 놀려 패체니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딸이었다. ○

안 식 일

선교부장 부 라 운

안식일은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확립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 날에 그를 경배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꺼이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뜻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선교부장으로서는 나는 여러분들이 1972년 1월 29일자 “처치 뉴스”에서 발췌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안식일을 성스럽고 거룩하게 지키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을 기원합니다.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만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이러한 성스러운 명령을 의면하고 그러한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권능에 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일요일은 수백만이 즐기는 공휴일입니다. 이 날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날로, 가장 큰 시합이 개최되며, 전국적으로 중계가 되어 수많은 사람이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안식일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축구나 농구 경기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또한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일과 다름없이 식료품에서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팔고 사는 장사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또한 많은 파티나 리셉션, 등산, 스키, 수영, 보트놀이, 낚시질, 사냥 등을 즐기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이 성스러운 날에 이러한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활동에서 성스러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고대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으로, 즉 그가 살아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사실을 거부한다면 곧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믿지 않

거나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거나 불복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를 무시하는 것은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란 그에 대한 대항이요 도전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비롯한 행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 계시는 주님이 제정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라”(교성 59편 참조) 다른 일 이외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 외에 다만,

- 1-기도의 집에 가며
- 2-성찬을 바치고 의무를 다하며,
- 3-가장 높으신 이에게 헌물을 바치며,
- 4-형제들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 5-하나님에 대한 정성스런 마음을 갖고
- 6-의로운 하나님인 주님께 희생을 바치며 이것도 애통하는 마음과 참회하는 정신으로 행하며,
- 7-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지켜야 할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성스럽게 주어질 율법입니다. 이것은 단지 충고가 아니며 주님의 뜻을 표현한 말씀에 그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며 계명입니다.

이것은 또한 구원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복음 계획의 근본이 됩니다.

안식일의 준수에 관한 사항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표시로서 고대에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율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항적인 태도를 반영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가 준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하나를 어긴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 날에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라”는 말씀은 안식일에 대개의 사람이 행하는 활동이 율법에 어긋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운동, 캠핑, 낚시질, 장사, 파티 및 그외의 세상적인 일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평일과는 달리 주님에게 바치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약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면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요……참으로 음식이나 의복이나 집이나 곡간이나 과수원이나 채소밭이나 포도원 그 어느 것이나 땅에서 나오는 풀이나 좋은 것은 ‘참으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교성 59편)

이러한 모든 것은 안식일을 지키므로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주의 편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주의 편이겠습니까?

